

2001년

제5차 정기총회 보고서

일시: 2001년 1월 30일(화) 오후5시

장소: 여성사회교육원 3층 청산교육장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01년

제5차 정기총회 보고서

일시: 2001년 1월 30일(화) 오후5시

장소: 여성사회교육원 3층 청산교육장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목 차

총회순서	5
2000년도 사업평가	
사무처 보고	9
사업 방향 평가	30
각 위원회 사업평가	42
2000년도 사업계획	
사업방향	81
각 위원회 사업계획	84
월별 사업계획	96
정 관	97
운 영 규 정	103
금 모 음	105

총회순서

제1부 : 정책간담회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여성의 힘으로"

제2부 : 정기총회

성수보고

개회선언

회순제택

개회사

전 회의록 낭독

2000년 사업보고

-사무처

-각 위원회

감사보고

2000년 회계결산보고

정관개정

임원 선출

신·구 임원 교체식과 인사

2001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사무처

-각 위원회

2001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기타토의

모범회원 시상

회의록 반음

폐회선언

의장 : 정현백 상임대표

서기 : 한국염

의장

의장

서기

정책국장 : 정경란

각 위원장

감사 : 이문우, 윤영애

회계 : 노길림

의장

의장

의장

상임대표

각 위원장

의장

의장

의장

의장

의장

제3부 : 노래와 춤이 있는 자리

2000년도 사업보고

1. 사무처 보고

1. 회의

(1) 2000년 제4차 정기총회

- 일시: 2000년 1월 25일(화) 오후6시
- 장소: 여성사회 교육원 청산교육장
- 성원: 참석50명 위임21명 (계 260명)
- 순서 ①제1부 총회
②평화축제
- 안건 ①2000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②2001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채택
③정관 개정과 임원선출
④모범회원 최경원, 서미숙, 조연지 김연수, 김귀옥회원 포상

(2) 이사회

- * 구성: 이우정, 정현택, 이김현숙, 김윤옥, 김지영, 박정수, 윤순녀, 이정자, 이미경 (이상 9명)

1) 2001년 상반기 이사회

- 일시: 2001년 1월 16일(화) 오후6시
- 장소: 세실레스토랑
- 참석: 이우정, 정현택, 김지영, 이정자
- 위임: 이미경, 박정수, 이김현숙, 김윤옥

- 안건 ①2000년 사업보고와 결산(감사)보고
- ②총회준비위원회 회의 보고
- ③2001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검토

(3) 운영위원회

- * 구성: 정현백, 이길현숙, 김윤옥(공동대표), 한국업(서기), 홍승희(부서기), 노길림(회계), 조영숙(부회계), 고은실(평화통일사업위원장), 이은선(평화교육위원장), 윤명선(재정조직위원장), 김정수(정책기획위원장), 김숙임(사무총장)

1) 1차

- 일시: 2000년 3월 22일(수) 오후 3시
-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 참석: 정현백, 이길현숙, 김윤옥, 한국업, 노길림, 조영숙, 홍승희, 김숙임
- 안건 ①북한여성과 어린이 돕기와 여성평화통일포럼
- ②여성평화아카데미, 평화기행
- ③5.24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과 세계분쟁지역 여성평화행진, 발제니엄포럼
- ④회원확대사업
- ⑤통일부 통일교육 프로젝트와 통일부 북한이탈 여성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2) 2차

- 일시: 2000년 6월 13일(화) 오후2시
-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 참석: 이길현숙, 김윤옥, 한국업, 홍승희, 윤명선, 김정수, 김숙임
- 안건 ①회원확대사업진행과 평가
- ②수익사업(매실농축액 판매)
- ③평화기행
- ④21세기 한반도 통일·평화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과 제2회 여성평화통일포럼
- ⑤정상회담 수행자 초청도론

⑥6.25-8.15 관련 통일대중사업
⑦사무총장 사임의 건

3) 3차

- 일시: 2000년 10월 25일(수) 오후2시
-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 참석: 정현택, 이길현숙, 김윤옥, 윤명선, 고은실, 노길현
- 안건 ①21세기 한반도 통일·평화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과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가을 강좌
②남북여성교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③총회준비위원회 구성 건

4) 4차

- 일시: 2001년 1월 12일(금) 오후3시
-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 참석: 정현택, 이길현숙, 김정수, 한국연, 홍승희, 서미숙, 노길현
- 안건 ①과 위원장 선출과 회계·서기 선출
②정책국장 사임의 건

(4) 남북여성교류소위

*구성: 사무처, 공동대표, 고은실, 김정수, 김귀옥, 조영희, 김숙임, 박현진

1) 1차

- 일시: 2000년 11월 8일(수) 오후7시
- 장소: 새실 레스토랑
- 내용: 남북여성교류특별위원회 설치 제안 설명, 남북여성교류특별위원회 활동과 에버브레단 프로젝트 논의

2) 2차

- 일시: 2000년 11월 29일(수) 오후6시
- 장소: 제2건국추진위원회 사무실
- 내용: 기초발제 고은실, 남북여성교류와 관련된 평화여성회의 정책성과

필요성 논의

(5) 총회준비위원회

* 구성: 운영위원, 사무처, 조영희, 김숙임

1) 1차

- 일시: 2000년 11월 29일(수) 12시
- 장소: 제2진국추진위원회 사무실
- 참석: 정현택, 이현숙, 고은실, 서미숙, 김정수, 김숙임
- 안건 ①과 위원회 사업 평가
②김윤옥 대표의 사임의 건

2) 2차

- 일시: 2000년 12월 22일(금) 오후 4시
-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 참석: 정현택, 이김현숙, 서미숙, 김정수, 김숙임
- 안건 ①2000년 사업방향 평가와 국내·국외 연대 사업 평가
②조직논의

3) 3차

- 일시: 2001년 1월 12일(금) 오후 3시
- 장소: 한국여성연구소 회의실
- 참석: 정현택, 이현숙, 서미숙, 김정수, 김숙임, 한국임, 홍승희, 조영희
노길영
- 안건 ①위원장, 회계서기 논의
②감사선출의 건
③2001년 사업방향과 각 위원회 사업계획(안) 검토
④2000년 회계 결산보고와 2001년 예산(안) 검토
⑤조직논의
⑥총회프로그램 논의와 모범회원(이낙호 박현선 문명녀) 추천

2. 주요 사업활동 일지(2000년 1월 1일-12월 31일)

- 1.7 신년 하례회
- 1.12 1999년 회계 감사
- 1.20 2000년 제4차 정기이사회회 개최
- 1.25 2000년 제4차 정기총회 개최
- 1.28 여성평화운동 정립을 위한 워킹숍(강사:강순원 평화교육위원)
- 1.28 행정자치부 "99년 민간단체 보조사업 종합평가 워크숍"
- 2.25 여성평화운동 정립을 위한 워킹숍(강사:정현백 상임대표)
- 3.20 병설 한국어성평화연구원 이사회
- 4.10 6월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관한 평화여성회 논평
- 4.20 여성들의 통일이식 조사결과 발표회
- 4.25-7.6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봄강좌 (매주1회 목요일 / 10강좌)
- 5.3 긴급정책 간담회-정상회담에 대한 평화여성회 대응 논의
- 5.3 대구 함께하는 주부모임 평화교육강의(강사: 김숙임사무총장)
- 5.12 핵부사임을 통해 본 국방계획의 문제점과 개선점 긴급토론회 (참여연대 공동 주최)
- 5.16 제1회 여성평화통일포럼(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 5.18 요한갑룡 초청 간담회 개최(여성평화분과)
- 5.22-5.26 뉴욕 밀레니엄 포럼 회의 참석
- 5.24 부산여성회 평화교육 강의 (강사: 정현백 상임대표)
- 5.25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발표회"
- 5.29 남북정상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여성들의 건의문
(통일부, 여성특별위원회, 청와대, 언론 등 보냄)
- 6.9-6.10 감동해소 결본가 훈련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 실시(미국친우봉사회(AFSC),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우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주최)
- 6.15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교류에 대한 남북여성의 합의를 환영한다"는 성명서 발표
- 6.17 2000년 세계평화문화의 해 기념 "여성평화행진"(평화기행)
- 6.22-25 안보를 재 규명하기 위한 국제여성정상회의 참석
- 6.28 정대협 416차 정기수요집회 진행(한국여성학자협의회 공동주최)
- 7.12 제2회 여성평화통일포럼

- 7.25 독일통일과 김동해스 국제심포지엄(AFSC 등 공동주최)
- 7.27 여성인권,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여성 결의대회
(새움터 외 여성단체 공동주최)
- 8.6 ‘여성인권 유린하는 SOFA 개정하라’ 성명 발표
6.15선언 실천과 민족화해를 위한 2000 여성 평화·통일 어울마당(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 8.14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실천과제’ 발표
- 8.17-19 제3회 한일 평화교육 심포지움(발표:김정수, 평화교육위원3인함석)
- 9.1 정칙간담회
- 9.5 ‘남북 화해·협력시대 여성과 언론’ 토론회(주제발표: 이김현숙)
- 9.14 유네스코 평화문화의 해 서명 캠페인 서명서 전달
- 9.19 여성인권보호조향선설을 위한 SOFA 정칙간담회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 9.23-27 갈등해소전문가 훈련 프로그램-갈등, 분쟁 해결
- 10.5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소책자 발행(700부)
- 10.19 “여성과 평화” 국제심포지엄(아침 여성분과 평화분과 공동주최)
- 10.26-28 진달래·무궁화 평화 캠프
- 11.3-4 갈등해소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여성과 갈등해결
- 11.7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 11.8 정대협 434차 정기수요 시위권행(한국여성학자협의회 공동주최)
- 11.11-12 공동대표와 실무자 MT
- 11.22 SOFA개정시 여성인권보호조향 선설을 위한 국회결의 촉구청원
- 11.23-25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가을강좌
- 12.6-9 “평화문화를 위한 아시아 여성회의” 김정수 참석(베트남)
- 12.7-13 2000년 일본군 성노예를 재판하는 여성 국제 진법 법정
이김현숙, 정경란 참석
- 12.15 제3회 여성평화통일포럼
- 12.17-18 갈등해소전문가 훈련프로-갈등해결 훈련을 위한 도구와 방법

3. 홍보 출판 활동

(1) 언론

- 중앙일보: 2000년 5월 16일, 평화여성회 소개
- 여성신문사: 평화기행, 2001년 사업방향 등
- 라디오로 여는 세상(KBS) 8월16일 평화여성회 사업 소개(인터뷰 정경란)
- 라디오 생방송 오늘(KBS), 불교방송: 단체 소개 (정경란 인터뷰)
- 주간 통일21, 교회연합신문, 불교방송, 크리스찬신문: 단체 소개
- 제3TV: 독일통일과 갈등해소,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인터넷 방송
- 기타 각 언론에 인터뷰 및 단체 관련 홍보

(2) 소식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2000년 가을호, 10호, 2000.10.5, 700부발행

- 회원이야기: 함께 꿈꾸어 주십시오 / 박관숙(회원)
- 한반도평화이야기: 전면개정 외에 대안은 없다, SOFA여성인권보호 조항 위한 여성계 요구안
- 함께 하는 기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소개
- 초점: 흥분에서 아쉬움까지 '남북정상회담의 평가와 향후 전망'/홍승희
- 자료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선언' 전문
 -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실천과제
 - 북한여성의 실태 / 정경란(본회 정책국장)
 -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여성들의 건의문
- 평화이야기: 새로운 숙제를 안고 돌아온 길 / 이정주(평화기행참석자)
- 지구촌평화이야기 -안보를 재 규정하기 위한 국제 여성정상회의 보고서
 - 밀레니엄 포럼을 다녀와서 / 정경란(본회 정책국장)
 - 빈곤과 폭력추방을 위한 2000년 세계여성대회전
 - '시민혁명'으로 가는 걸음마 / 안수경(한국여성학자협의회 사무국장)
- 평화교육자료: 평화를 만든다는 것/정유진(이미군범죄근절본부사무총장)
- 쉬어 가는 시간(도서소개)

- 알림과 나눔
- 회원소식

(3) 소식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2000년 겨울호, 11호, 2001.1.15, 700부 발행

- 인사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빛깔에게 / 정현택
- 평화이야기 "평화문화를 위한 아시아 여성회의"에 다녀와서 / 김정수
-2000년 12월, 동경에서 열린 두 개의 모임 '정의를 찾기 위
한 투쟁-일본군 성노예를 재관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과 일
조국교정상화 촉구 여성의 모임' / 정경란
- 자료 -서두르자 일조국교정상화! 12.13 여성의 모임에서 발표된 호소문
-제43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민중 Vision 중 평화(Peace)부분 "전쟁방지와 대안안보 확립"
-ASEM 2000 민간포럼 여성분과 성명서 "Women's Vision 2000"
- 알림과 나눔
- 회원회비 납부현황

(4) <여성과 평화>연구총서 2000년 9월초 1,000부 발행, 당대출판

(5) 여성평화통일 포럼 자료집

- 제1회 "남북정상회담-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 2000.5.16. 200부 발행
- 제2회 "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2000.7.12. 200부 발행
- 제3회 "북한여성, 어떻게 만날 것인가" 2000.12.15. 200부 발행

(6) 21세기 한반도 통일·평화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2000.11.7. 200부 발행

(7) "여성과 평화"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2000.10.19. 200부 발행

(8)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강좌 자료집 2000.12.30. 100부 발행

4. 국내 연대활동

(1) 한국여성단체연합

1) 회의

① 이사회 (참석: 김숙임사무총장(상반기), 이길현숙 공동대표, 정경란 국장)

㉠ 2차

-일시: 2000년 5월 9일

-내용: 4.13총선 활동보고와 평가, 호주계운동, 여성평화통일운동 방향 등

㉡ 3차

-일시: 2000년 9월29일

-내용: 빈곤과 폭력 추방을 위한 2000년 세계여성대회진, 전국여성활동가 여름 수련회 등

② 통일평화위원회 (위원장: 정현백 상임대표)

㉠ 1차

-일시: 2000년 2월 8일

-내용: 2000년 평화통일 위원회 사업 결정

㉡ 2차

-일시: 2000년 7월20일

-내용: 8.15통일행사, 하반기 세부사업계획 검토와 연대활동 등

㉢ 3차

-일시: 2000년 9월19일

-내용: 회원단체 교육용 통일교재 준비 권역, 북한여성 지원 사업논의 등

㉣ 4차

-일시: 2000년 11월 3일

-내용: 남북여성교류,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논의 등

㉤ 5차

-일시: 2000년 11월28일

-내용: 북한 산모 돕기 캠페인, 통일교육 교재, 사업평가와 계획 등

③ 사무국장 연석회의 (참석: 정경란 정책국장)

㉠ 1차

-일시: 2000년 2월 8일

-내용: 2000년 사업 공유

2) 사업참여

① 제14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 일시: 2000년 1월11일-12일 (참석: 정현덕, 김숙임, 이김현숙, 정경란)

- 내용: 2000년 여성운동의 방향에 대한 정책토의, 총회 안건 논의

② 한국여성단체연합 16대 총선 공약 토론회

- 일시: 2000년 2월 22일 (참석: 김숙임, 정경란)

- 내용: 분야별 총선 공약 논의 (평화통일 분야 발표)

③ 한국여성단체연합 대안사회정책 창립심포지움

- 일시: 2000년 2월 23일 (주제발표: 정현덕 상임대표)

④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퍼블릭 액세스프로그램' 설명회

- 일시: 2000년 2월 23일 (참석: 김은희)

- 내용: 액세스 프로그램의 역사와 이해

⑤ 3.8 여성대회

- 일시: 2000년 3월 12일 (참석: 회원 20여명)

- 내용: 3.8 여성의 날 기념 여성대회, 올해의 여성상, 걸림돌.디딤돌 시상과 문화행사, 총선거리집회(KBS홀에서 당사-국민회의, 한나라당-앞을 지나 여의도공원)

- 참가내용: 부스설치와 단체소개

⑥ 신입 활동가 교육

- 일시: 2000년 3월 23일-25일 (참석: 김화숙)

- 내용: 여성운동과 나, 여성NGO활동가로서 나의 삶 등

⑦ "어머니의 뜰" 개업식

- 일시: 2000년 4월 14일 (참석: 이김현숙 김숙임)

- ⑩ 여성연합 후권을 위한 '한어름밤의 드락잔치'
 - 일시: 2000년 9월1일 (참석: 정현석, 이길현숙)
- ⑪ 2000 세계여성대회 민권 폭력 추방 한국여성대회
 - 일시: 2000년 10월 14일 (참석: 김화숙 김은희 외 2명)
 - 내용: 거리 캠페인과 문화공연, 비스투어(탈골공민-명동성당)
- ⑫ 북한노동당 창립55주년 기념행사 초청
 - 일시: 2000년 10월9일-14일 (참석: 정현백)
- ⑬ 2001년 제15차 정기 총회
 - 일시: 2001년 1월 8일-9일 (참석: 정현백, 이길현숙, 김은희, 김화숙)
 - 내용: 여성의 사회권 확보 등 정책토의와 총회안건 논의

(2) 4.13 총선시면연대

- 1) 유권자 한마당: 2000년 1월 30일 서울역 집회 참석
- 2) 국민참정권 회복, 부패정치인 추방 범국민대회: 2000년 2월 19일
- 3) 종묘공원 집회: 2000년 2월 26일
- 4) 탑골공원 집회: 2000년 3월 1일
- 5) 여성유권자 한마당: 2000년 3월 4일
- 6) 유권자 33인 선언문 낭독과 결의대회: 2000년 3월 31일
- 7) 낙선결의대회: 2000년 4월 3일
- 8) 낙선(공로구) 결의대회: 2000년 4월 11일
- 9) 촛불 결의대회: 2000년 4월 12일

(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우정 이사장이 공동대표로 정현석 상임대표가 1기 정책위원장으로, 이길현숙 공동대표가 2기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함

1) 사업참여

- 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하여 국민적 합의 도출 및 민의 전달을 위한 통일부 장관 초청 조찬 포럼: 2000년 5월 12일 (참석: 김숙임)
- ② 민화협 원로회의 : 2000년 5월 23일 (참석: 이김현숙)
- ③ 여성위원회 "여성통일정책간담회": 2000년 5월 25일 (주최발표: 정현백)
- ④ 남북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온거레평화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2000년 5월 29일 (보론자: 윤덕희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⑤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8.15통일행사 준비회의 (참석: 정경란)
- ⑥ 통일교육협의회 관련 모임: 2000년 7월 19일 (참석: 김화숙)
 - 내용: 통일교육협의회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하기 전에 민간단체의 의견 수렴
- ⑦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 일시: 2000년 8월 14일 (참석: 이김현숙, 정경란)
 -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들의 실천과제 발표 (이김현숙)
- ⑧ 전환기의 민간통일교육: 2000년 11월 2일 (참석: 정경란)
- ⑨ 신년 하례식: 2001년 1월11일 (참석: 이김현숙)

(4) 아셈 2000 민간포럼

*평화분과 간사단체 및 여성분과 분과위원으로 활동

1) 평화분과 회의 (참석: 정경란)

참가단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자주평화동원민족회의, 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 남북농업발전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경실련 통일협회, 좋은벗들, 원불교남북한삼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불평등한 소과 개정 국민행동, 세민재단, 서울평화센터,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한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함께가는사람들

① 1차, 2차

- 일시: 2000년 1월 21일, 2월11일
- 내용: 아셈2000 민간단체 포럼 형식, 내용, 의제 논의와 평화분과 준비

② 외국단체 간담회

- 일시: 2000년 2월 24일 (참석: 이김현숙, 정경만)
- 내용: 외국단체와 공동으로 평화분과의 총회, 워크샵, 캠페인 등 행사기획

③ 6차, 7차

- 일시: 2000년 5월 2일, 5월 18일
- 내용: 아시아-유럽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아셈 2000 민간포럼 진행상황 보고, 평화분과 전국총교운동연합 가입 승인, 워크샵 준비(주제, 담당단체, 해외단체 섭외), 밀레니엄 포럼 대응, 핵무사업 비리문제 대응 논의, 한일청년포럼 대응, 아셈2000 국제조직위원회 공지, 단체별 워크샵 주제 선정, 그룹형성

④ 요한 갈통 초청 간담회

- 일시: 2000년 5월 18일
- 내용: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에 대한 미래

⑤ 8차-10차

- 일시: 2000년 7월 27일, 8월 7일, 8월 17일
- 내용: 개막식 기초연설자 추천, 민중비전(People's Vision) 수정-워크샵 주제 논의(전체주제: 전쟁없는 21세기를 향한 대안안보, 워크샵 주제-미국의 전략과 대안안보, 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 통일, 여성과 평화)

⑥ Brid Brennan과 간담회

- 일시: 2000년 8월 20일
- 내용: 아셈2000 민간포럼 평화분과 워크샵 논의, <여성과 평화> 워크샵 설명 및 발표자 섭외 요청

⑦ 11차, 12차

- 일시: 2000년 9월 15일, 10월 9일
- 내용: 재정 및 토론자 섭외 현황보고, 기초연설자 논의, 워크샵 논의 부대행사 논의, 워크샵 발표자 결정, 아셈 2000 민간포럼 기간 중 전략 미

팅 및 워크샵 홍보논의, 실무 분담, 아셈 2000 민간포럼 전체일정 공유

2) 여성분과 (참석: 정경란)

참가단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또하나의문화,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문화예술기획,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어성단체연합, 한국어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어성장애인연합,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① 1차, 2차

- 일시: 2000년 2월 9일/ 3월 9일
- 내용: 여성분과의 활동 계획 논의, 여성분과 구성 논의, 아셈 2000 민간포럼 진행경위 및 여성분과 진행경위 보고, 여성분과의 행사와 전체적인 구성 논의 (Women's Vision 채택, 의제, 문화행사 등)

② 4차

- 일시: 2000년 6월 1일
- 내용: 아셈 민간포럼 설명회보고, 유럽정보교류부어 보고, 워크샵 진행에 대한 논의, 여성분과 일정에 대한 건

③ 아셈 2000 민간포럼 여성분과 워크샵

- 일시: 2000년 6월 12일
- 내용: 워크샵의 목적(여성분과위 참여 단체간의 관심과 이슈에 대한 정보 교류, Women's Vision 준비 등), 프로그램은 “여성과 평화” 워크샵 기획 안을 평화여성회가 발표하는 등 그 외 8개 주제 발표

④ 독일 에비트제단 한국지부 대표와 국제발전협력부 담당자와 아셈 여성분과 담당자 면담: 2000년 6월 30일

⑤ 5차, 6차

- 일시: 2000년 7월 6일/ 8월 11일
- 내용: 아셈 2000 민간포럼 기초와 방향에 대한 여성분과의 입장, 해외단체 섭외에 대한 논의, 워크샵 내용 검토, 집행위원회보고(아셈 2000 민간포럼 소속단체 분담금 문제, 분과 당 워크샵 2개로 확정), Women's

Vision 초안 검토, 아셈 2000 민간포럼 문화행사 진행상황, 여성노동 film festival(한국여성민우회), 여성분과 참가자 및 여성참가자 교류의 방에 대한 건, 워크샵 진행 검토

3) 집행위 회의 (참석: 정경란)

① 1차, 2차

- 일시: 2000년 1월24일/ 2월 13일
- 내용: 아셈 대회 행사일정 논의, 아셈2000 서울 국제 민간단체 회의를 위한 아시아-유럽 민간단체 서울 준비회의 계획안 검토(회의 성격, 회의 배경, 회의 목적, 회의 의제, 예비모임 일정 시안) 각 위원회 상황, 분과 활동 공유

② 7차

- 일시: 2000년 4월 26일
- 내용: 행사 개최 장소, 유럽 로비 투어, 홍보물 제작, 협조체제구축(한국 정부 로비, 주한 아시아유럽 대사관 등)

③ 아셈 2000 민간포럼 대표자 회의

- 일시: 2000년7월 7일
- 내용: 상반기 업무 총괄, 국제조직원위원회 결과보고, 분과별 진행상황 점검, 아셈 포럼 기조와 방향 논의, 재정원칙에 대한 논의사항, 집행력 강화에 대한 논의사항, 문화행사 준비상황, 시민행동 준비상황

④ 11차, 12차

- 일시: 2000년 7월 28일/ 8월 25일
- 내용: 공동대표 추가 건, 상임집행위원장 제도 신설과 선출 건, 장소 확정 건, 아셈 본회의와의 관계 등/ 각 분과 진행상황보고, 문화행사, 시민행동

⑤ 아셈 2000 민간포럼 임시 총회

- 일시: 2000년 9월 1일
- 내용: 전체제정점검(문화행사 예산추가, 단체참가비, 공동대표 단체분담금, 부족예산 확보), 시민행동 관련 참가 단체 결정

⑧ 비상집행위원회

- 일시: 2000년 9월 18일
- 내용: 아셈 기획단과 회의 결과, 봉은사 봉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분과 워크샵 검토

⑨ 13차, 14차

- 일시: 2000년 9월 29일/ 10월 13일
- 내용: 서울행동의 날 행사, 농업분야 간사단체 변경의 건, 인권분야 문제, 분과 워크샵 시간과 장소 문제 등 /총 점검(회의장소, 숙소, 참가규모, 프로그램 일정표, 등록, 만찬, 문화행사, 자원봉사 배치 등)

4) 사업참여

①아셈 외국단체 간담회

- 일시: 2000년 2월 23일-24일 (참석: 이길현숙, 정경란)
- 내용: 아셈 서울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주외국과 아시아 유럽 단체들의 재정, 의제, 행사명, 계획 등 협의

②민간포럼 설명회 및 기자회견: 2000년 5월 30일 (참석: 김숙인, 정경란)

③아셈 2000 민간포럼: 10월 18-21일

- 17일 해외 참석자 리셉션
- 18-19일 13개 분과의 워크샵
- 18일 개막식 (이길현숙 공동대표 개막식에서 평화분과 주제발표)
- 19일 "여성과 평화" 워크샵진행
- 20일 아셈서울행동의 날 (참석: 김희숙 김은희 정경란)
- 21일 DMZ 방문 (참석: 이길현숙, 정경란)

(5)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 이길현숙 공동대표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로 활동

1)성격

한국에는 37,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은 한미간의 혐의 불평등을 반영, 환경오염과 인권 특히 기지촌 주변의 여성과 혼혈아들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140여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사업참여

- ①미대사관 앞 집회: 2000년 1월 11일 (참석: 정경란)
- ②제4차 국민행동의 날 매향리 집회: 2000년 2월 15일 (참석: 이김현숙)
- ③기자회견: 2000년 4월 27일 (참석: 이김현숙)
- ④매향리 폭탄무하 관련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 2000년 5월 25일
- ⑤매향리 사격장 폐쇄와 인간미 잇기: 2000년 6월 6일
(참석: 김숙임, 조영희, 김정수, 정경란, 김화숙, 김은희)
- ⑥여성인권 유린하는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여성권의대회
· 일시: 2000년 7월27일, 명동 한빛은행 앞
· 내용: 퍼포먼스,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 피해 사례 발표, SOFA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 성명서낭독 등
- ⑦서울역 집회: 2000년 7월 29일 (참석: 이김현숙, 정경란, 김화숙, 김은희, 김정수)
- ⑧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정책간담회
· 일시: 2000년 9월 19일
· 내용: 기지촌 여성과 야동참의 인권실태와 미측 SOFA와 미일SOFA를 통해 바라본 한미 SOFA의 문제점과 SOFA 개정요구안과 8차 협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성인권 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여성계 요구안 발표
- ⑨SOFA 전면개정을 위한 방미활동
· 일시: 2000년 9월 25일-10월 2일 (참석: 이김현숙)
· 내용: 미국무부 앞 시위, SOFA개정 촉구안 전달, 백악관 앞 시위, 미 상.하의원 방문, 주미 한국대사관 방문, 아셈원대사, 유명환 공사와의 간담회, 미국 라디오방송 출연 및 신문인터뷰, 미국 대학교 세미나, 미국 평화단체와 정치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제미교포시민단체 방문간담회 등
- ⑩집행위원 회의: 2000년 8월 7일과 9월 18일 (참석: 정경란)
- ⑪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입법청원서 제출

일시: 2000년 11월 22일

(6) 매항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 운동

- * 매항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 범국민 대폭회의 이길현숙 공동대표가 공동 대표로 활동

1) 사업참여

- ①매항리 폭탄투하 관련 규탄성명
- ②매항리 사격장 폐쇄와 인간적 잇기: 2000년 6월 6일
(참석: 김숙임, 조영희, 김정수, 정경란, 김화숙, 김은희)
- ③오키나와·매항리 합동 보름달 행사
2000년 7월 16일 (참석: 이길현숙, 김화숙, 김은희)
- ④매항리 사격장 폐쇄 관련 시위 수사로 참석 (이길현숙 참석 외)
- ⑤미군사령부와 국방부 앞 시위 (이길현숙 참석)

(7) 군사주의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여성평화 네트워크 활동

1) 성격

미군기지를 가진 나라들의 여성단체조직으로써 한국에서는 주한미군법외군절운동본부, 새움터, 두려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과 오키나와에서 1,2차 회의를 가진바 있으며, 이 단체들은 주로 군사주의의 폐해, 특히 미군기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인권유린과 환경파괴, 주민의 안전위협에 관심을 두고 그 해결책을 고등으로 모색하고 있다.

2) 사업참여

- ①오키나와 여성정상회의: 2000년 6월22일-25일 (참석: 이길현숙)
- ②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조직
· 참여단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주한미군법외군절운동본부, 새움터, 두려방, 평화인권연대

- 내용: 2002년 국제회의 준비모임 (3회진행)
- ③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미국여성네트웍 모임
 - 1차 모임: 2000년 3월 7일
 - 내용: 6월 23일에서 28일까지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국제여성안
전대회에 대한 공동 대책 논의
 - 2차 모임: 2000년 4월4일
 - 내용: 오키나와 여성정상회의(6월 20일-23일) 관련 준비모임

(8) 한국대인지리 대책 회의

1) 성격

한반도에 100만개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대인지리를 제거, 지리피해를 막고, 이미 피해자가 된 사람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활동을 한다.

2) 사업참여

- ①연천 지리피해자 가족 방문 (참석: 이길현숙)
- ②기자회견 (참석: 이길현숙)
- ③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방문 (참석: 이길현숙)

(9) 유네스코 평화문화의 해 활동

- 1) 유엔 평화문화의 해 선포식 참여 (참석: 이길현숙)
- 2) 평화문화의 해 서명 캠페인: 2000년 9월 17일 전달
- 3) 평화문화의 해 국제회의(베트남) '평화문화를 위한 아시아 여성회의'
 - 일시: 2000년 12월 6일-9일 (참석: 김정수)

(10)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민간모임

- 1)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포럼회
 - 일시: 2000년 5월 25일 (참석: 김숙임, 김정수, 김귀옥)

- 2)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00년 6월 1일
 - 서명: 정현백, 이길현숙, 김숙임, 정경란, 김귀옥, 기정수, 박현선, 이은선, 윤덕희, 고은실

(11) 한국여성대문세계대책협의회 활동

- 1) 경대협 40회 정기수요집회: 2000년 3월 1일 (참석: 김윤옥 외)
- 2) 제416차와 제434차 정기 수요집회 진행 (한국여성학자협의회 공동주최)
 - 일시: 2000년 6월 28일과 2000년 11월 8일
- 3)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 일시: 2000년 12월 6일-12일 (참석: 이길현숙, 정경란)

(12) 기타활동

- 1) 군가산점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2000년 2월 9일 (참석: 정경란)
- 2)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단체장 간담회: 2000년 2월 24일 (참석: 정현백)
- 3) 인권재단 제주 인권학술회의: 2000년 2월 25일-28일 (참석: 김숙임)
 - '90년대 여성평화운동과 여성의 역할' 발제 (김정수)
- 4)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주최 3.8여성대회: 2000년 3월 5일 (참석: 김은희)
- 5) 국방연구원 주최 "국방정책과 NGO의 역할"
 - 2000년 3월 9일 (도론자: 이길현숙)
- 6) 미군범죄, 양민학살 공식 사과와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촉구대회 (26차 금요시위): 2000년 3월 17일 (참석: 김화숙)
- 7) 한국여성기금조성을 위한 100만인 참여캠페인 발대식과 신세계벽화점 부스 일일봉사: 2000년 4월 28일 (참석: 이길현숙)과 5월 2일 (참석: 김은희)
- 8)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창립20주년 행사
 - 2000년4월24일(참석: 이우경, 김숙임, 정경란)
- 9) 시민운동지원기금 창립5주년 기념과 한국시민운동상 시상식
 - 일시: 2000년 5월 17일 (참석: 김숙임)

- 10) 통일부장관 주재 민간단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
-일시: 2000년 5월 15일 (참석: 이우정, 이김현숙)
- 11) 6월 민주항쟁 13주년 기념의 밤: 2000년 6월 9일 (참석: 이우정, 김숙임)
- 12) 좋은벗들 '북한주민의 북한사회, 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2000년 6월 29일 (참석: 정경란)
- 13) 여성신문사 주재 여성단체 실무자 모임: 2000년 6월 28일 (참석: 정경란)
- 14) 여성 2000년 심포지움: 2000년 7월 13일 (참석: 김화숙)
- 15) 시민의정연수: 2000년 7월 18일-21일 (참석: 정경란)
- 16) 여성평화의 집 임시 이사회: 2000년 7월 19일 (참석: 정경란, 김은희)
-2000년 하반기 평화의 집 총무 담당하기로 함
- 17) 4천년 한중일 차세대여성지도력 워크숍 관련 본회 방문: 2000년 7월20일
- 18) 통일교육협의회 준비위원회 5회 진행(이김현숙 참석): 이김현숙 공동의장
- 19) 북미교회여성 방북보고대회: 2000년 9월 4일(참석: 이우정, 김윤옥, 정경란)

II. 2000년 사업 방향 평가

1. 제4차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방향

(1) 평화여성회 2000년 사업방향: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본회는 분단과 대립을 넘어 관용과 공존의식을 확산 시키고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라는 1999년의 사업방향을 계승한다. 유엔이 정한 "2000년 세계 평화 문화의 해"를 맞아 유엔과 세계 평화단체와 연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분위 기 조성과 대중적인 평화문화의 확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1) 평화여성회 사업목표

- ① 유엔이 정한 '2000평화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 의식을 확산시키고 평화문화를 증진하는데 주력한다.
- ②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제시, 의정감시활동, 대정부 활동 등을 강화한다.
- ③ 내부 사업기반을 다지고 회원확대와 재정확보를 위해 힘을 모은다.
- ④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연구와 평화여성운동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 한다.

(2) 2000년 평화여성회 중점사업 및 주요사업

1) 중점사업: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 ① 여성평화아카데미: 대중여성을 위한 평화교육

- ② 평화교육 전문강사 양성프로그램
- ③ 여성통일아카데미: 통일대비 여성지도력 양성프로그램
- ④ 평화교육 심포지움

2) 주요사업

- ① 평화문화의 증진
 - 평화캠페인: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평화문화 캠페인 전개, 학생과 여성 대상
 - 평화기행: 한반도 분쟁지역 체험을 위한 평화기행-미군에 의한 피해현장, 분단지역 또는 대인지뢰대설 현장 및 피해자면담 등
- ② 북한 들기와 북한여성연구와 교육
 - 옷감 보내기, 입산부용 영양제 등 북한여성과 어린이를 돕기 위한 적절한 지원품목을 선정해서 지정 기탁하는 방안으로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 북한여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출판
 - 탈북여성에 대한 교육, 상담, 정책제시
- ③ 남북여성교류와 동북아여성평화네트웍, 국제평화네트웍 형성과 교류 - 한일평화회의, 한일여성평화네트웍 등
- ④ 군축활동(연대를 통한 방식) - 평화군축을 위한 의정감시단 활동, 전문가 위임, ASEM 회의를 통한 국제연대와 공동대응을 통한 군축의지 개발 및 실행
- ⑤ 회원과 후원자 재정비 및 확대 등 조직 활성화와 재정자립 강화 추진

2. 2000년 사업방향에 따른 실천내용

(1) 평화친구만들기 2000 캠페인 (사제한 내용은 재정조직위원회 사업할 보조)

- ①사업수행처: 재정조직위원회
- ②일시: 2월-6월
- ③내용: 기존 회원을 분석을 통해 회원 권리, 신입회원과 후원회원 확보

(2) 여성들의 통일외식 조사결과 발표회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참조)

①사업수행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②일시: 4월20일(목) 오후2시

③장소: 성균관대 경영관 첨단강의실

④내용: 1999년 여성의 통일외식조사분석 발표

남북한 여성교류와 남한측 참석자의 태도에 대한 분석

여성단체의 통일외식과 통일관련 사업에 관한 연구와 역량강화방안

(3)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강좌 2회 실시 (자세한 내용은 평화교육위원회 사업참조)

①사업수행처: 평화교육위원회

②일시: 봄 강좌 - 4월27일~7월6일(매주목요일 저녁7시)

가을 강좌 - 11월 23일(목) 오후 1시~25일(토) 오후 5시

③장소: 봄 강좌 - 여성사회교육원

가을 강좌 - 수유리 원불교 봉도 청소년수련원

④내용: 봄 강좌 - 평화의 개념과 평화철학, 평화와 통일, 평화와 인권, 평화와 여성

가을 강좌 - 여성·평화·그리고 일상

(4) 백두사업을 통해 본 국방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권 긴급토론회

(참여연대공동주최)

①일시: 5월12일(금) 오후 2시

②장소: 참여연대 강당

③내용: 국방관련 정부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제1, 2, 3차 여성평화통일포럼 (자세한 내용은 평화통일위원회 참조)

①사업수행처: 평화통일위원회

②일시: 5월16일 2-5시(1차), 7월 12일 2-6시(2차), 12월 15일 2-5시(3차)

③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④내용

-1차: 정상회담의 배경과 전망,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여성의 역할 토론회

-2차: 남북여성교류가 남북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남북여성교류의 방향과 과제

-3차: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와 남한여성의 준비

(6) 2000년 세계 평화문화의 해 기념 여성평화행진(내용은 평화교육위원회의 사업장표)

①사업수행처: 평화교육위원회

②일시: 6월 17일(토)

③장소: 관문정과 파주 금파리 일대

(7) 갈등해소전문가 프로그램(여성연합, 민족회의, 비국인우동사회 공동주최)

(과제한 내용은 국제위원회의 사업장표 참조)

①사업수행처: 국제협력위원회

②일시: 6월 9일-10일 7월 25일-26일, 9월 23일-27일, 11월 3일-4일
12월 17일-18일

③장소: 기독교연합회관 902호, 은행회관, 성가수녀원, 크리스찬 아카데미

④내용: 오리엔테이션, “독일통일과 갈등해결” 공개학살 및 국제성포지엄, 중재와 협상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 논문, 여성과 갈등해결, 갈등해결 분석과 방법론

(8) 불평등한 SOFA 개정과 여성인권 보호조항 신설 촉구 활동

1) 여성인권,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여성결의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외 5개단체 공동주최)

①일시: 7월27일(목) 12시-오후 1시 30분

②장소: 명동 한빛은행 앞

③내용: 피포먼스, SOFA 개정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이현숙 본회 공동대표), 여성의 인권보호와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촉구(새움터 김현선 대표), 주한미군에 의한 한강 독극물 방출사건에 대한 경과보고와 SOFA 전면 개정 촉구(녹색연합), 성명서 낭독(한국여성연합 이문자 공동대표)

2)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정책간담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새우터 공동주최)

①일시: 9월19일(화) 오후 2-5시

②장소: 설가수너원

③내용: 기지촌 여성과 아동 인권 실태(김현선 새우터 대표), 여성인권 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여성계 요구안(이길현숙 본회 공동대표), 미·독 SOFA 와 미·일 SOFA를 통해 바라본 한·미 SOFA의 문제점(양영미 참여연대 국제연대 담당), SOFA 개정요구안과 8차 협상에 대한 평가(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발표 및 토론

3) SOFA 개정 촉구를 위한 미국 로베투어

①일정: 9월 24일 - 10월 2일

②내용: 미국무부앞 시위 및 SOFA개정 촉구 안 전달, 백악관 앞 시위, 미국상·하의원 방문 주미 한국대사관 방문, 양성철 대사, 유명환 공사와 의 간담회, 미국라디오 방송출현 미국 대학교 세미나, 미국평화단체 및 정치관련단체와의 간담회, 평화신문 인터뷰 등

4) SOFA 개정 시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국회결의 촉구 청원 안 제출

①청원주제: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②청원일자: 11월 22일

③소개의원: 이미경(새천년민주당), 김원웅(한나라당) 등

(9) 6.15 선언 실천과 민족화해를 위한 '2000 여성 평화·통일 어울마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

①일시: 8월 6일(일) 오후 4시 30분-6시 30분

②장소: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③내용: 노래와 율동(호서대 '물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춤 공연(현대무용가 이지현), 북한노래 떠들러와 춤 공연(북한 이발 여성들), '가짜이 더 가까이' 북한 말기 퀘즈마당, '통일소녀' 북한노래공연, 한반

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힘찬 움직임(문선공인·이화여대 탈반), 부대행사
(레이스케인팅, 핸드프링팅, 통일외식도 스티커 붙이기)

**(10)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자세한 내용은 평화교육위원회 사업단 참조)

①사업수행처: 평화교육위원회

②일시: 2000년 11월 7일(화) 오후 1-5시

③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침단강의실

④내용: 여성과 평화교육, 외국의 평화교육 사례, 통일·평화교육의 실효, 한국
여성평화운동의 평화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

**(11) 아셈민간포럼 “여성과 평화(gender & peace)”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평화분과 간사활동**(자세한 내용은 국제위원회 사업단 참조)

①사업수행처: 국제위원회

②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4시(심포지움), 10월 18-21일(아셈민간포럼)

③장소: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외

④내용: 21세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법과 각국의 사례 발표
및 DMZ 방문

(12) 메실농축액 수익사업(자세한 내용은 재정조직위원회 사업단 참조)

①사업수행처: 재정조직위원회

②일시: 7월 이후

③내용: 준비기금을 확보하여 메실농축액을 구입한 후 200g 75병을 40,000
원에 판매

(14) 『여성과 평화』 창간호 출판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단 참조)

①사업수행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②출판 시가 9월 (당대출판사)

③내용: 일상속의 변평화(특집), 좌담, 시사와 논평, 연구논단, 평화교육·평화운동 등

3. 평가

(1) 2000년도 사업목표에 따른 평가

1) 유연이 정한 '2000년 평화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의식을 확산시키고 평화문화를 증진하는 데 주력한다

①평화기행, 여성평화아카데미 등 교육프로그램과 8.15 여성통일한마당 등의 대중행사를 통해 평화의식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②이밖에도 2000년 사업목표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로부터 대외적으로 본회가 알려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③다양한 사업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사업 효과가 최린 확대 등의 직접적인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2)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제시, 의정감시활동, 대정부 활동 강화

①평화통일에 대한 포럼, 심포지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 장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남북교류 및 통일, 평화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환기시키고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②6.15남북공동선언 실천과제 제시나 여성평화통일포럼, 국방비리 관련 정책토론회(삼미연대공동), 불평등한 SOFA협정에 대한 여성의 입장 개진 등을 통해 정책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을 모아 정부 당국에 전달하는 등 대정부 활동을 펼쳤다.

③의정감시활동은 조직 내·외부의 사정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④여성제에서는 통일정책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라는 요구를 전개해왔는데 이는 통일부 정책 자문회의에 여성의 참여가 25%로 확대되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3) 회원확대와 재정확보

- ① 2000년도 사업 시행을 위한 재정은 비교적 원만하게 확보되었다.
- ② 중·하반기 이후 평화여성회의의 주력사업으로 설정된 회원확대 사업(평화친구 만들기 2000 캠페인)은 회원을 확대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 독립을 추구한다는 목표 속에서 중요하게 떠올랐고 본회의 중점사업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신입 회원이 일정정도 들어오는 성과가 있었다.
- ③ 비록 새로운 회원이 확보되었으나 목표 설정에 대비할 때 미약했다. 이는 회원확대 사업이 본회 중요사업으로서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공유하지 못해 전체 회원의 지원이 미비한 관계로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화운동의 예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중성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 ④ 앞으로 회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회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자주 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입 회원에 대한 후속작업이 미비한 점을 보완 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사, 후원회원의 실질적인 보강과 이의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 ⑤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2000년도 중점사업 및 주요사업에 따른 평가

1) 중점사업: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 ① 여성평화아카데미, 평화기행, 평화교육 심포지움, 여성평화통일포럼 등 다양한 형태로 실천하였고 대체로 중점사업을 계획대로 실행하였다.
- ② 실무자의 교체와 사업의 과중함으로 인해 '중점' 사업의 의미에 대해 사무처, 위원회 등 조직 내부의 공유가 부족하였다.
- ③ 계획된 중점사업 중 여성통일아카데미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북한과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를 비롯한 통일아카데미

와 같은 통일교육이 2001년 사업에 실시될 것이 적극 요청된다.

2) 주요사업: 평화문화의 증진, 북한 들기와 북한여성연구와 교육, 국제평화 네트워크 형성과 교류, 군축활동

- ① 평화기행과 8,15여성평화통일한마당, 유네스코의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의 평화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평화문화 증진이라는 주요사업을 실천하여 본회의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 ② 아셈 2000년 민간포럼에서 본회가 간사단제로 “여성과 평화(gender and peace)”를 비롯해 평화론의 워크숍을 조직하는 등 외국평화단체들과 국내 평화단체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델레니엄 포럼, 오키나와 여성정상회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비국여성네트워크, SOFA 방미단,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국제법정 등 국제 연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③ 북한 들기 사업을 다각도로 계획하였으나 참여 단체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과 내부적인 사업과다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은 한계로 남는다.

(3) 기타 조직 및 국내 연대활동 평가

1) 본회 조직 회의

- ① 사무처회의: 특별한 사안이 있지 않을 경우 매주 한번씩 회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사업보고와 현안에 급급하며 실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한계가 있었다.
- ② 공동대표자회의: 주요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상시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 ③ 운영위: 운영위 규정에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도에 4회 실행하였다. (참석율: 총 11명 평균 7명 참석, 평균 참석율 64%)

④) 각 위원회 회의: 전반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각 위원회 회의에 대한 위원 평균 참석률>

위 원 회	회의진행(회)	총 위원(명)	평균 참석인원(명)	참석률(%)
정책기획위원회	4	9	5	55%
평화통일위원회	4	9	3	33%
평화교육위원회	7	8	4	50%
재정조직위원회	9	9	3	33%
국제협력위원회	4	8	3	38%
한국여성평화연구원	7	7	6	86%

2) 국내 연대 활동

① 성과

-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헌택 상임대표가 민화합 1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여성위원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이길현 숙 선생님이 2기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헌택 상임대표가 평화통일위원장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평화통일 부문에서 여성연합과 연대활동을 전개하였다. 다만 본회 사무처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여성연합 이사회, 평화통일위원회, 사무국장협의회에 참여는 다소 미비하였다.
- ㉢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수요시위를 2회 개최(한국여성학자협의회와 공동)하고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 참여하는 등 정대협 연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 불평등한 SOFA국민행동본부: 지난 2000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운동은 가장 치열한 사회운동의 하나였다. 이 운동에 이길현숙 대표가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의 공동대표로 주도적인 활동을 벌였다. 거의 매주 열리는 시위와 번번하게 열리는 세미나와 토론회, 기자회견, 방송, 미국대사관 방문, 국회의원 방문, 외교통상위 복미과 SOFA 개

장 담당자 방문, SOFA 개정을 위한 미국로비투어 등 SOFA개정을 위한 절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불평등한 SOFA 협정 때문에 인권을 유린 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SOFA 개정시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 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와 토론회를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세움터와 공동 개최하고 이를 위한 국회 입법청원활동도 벌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0년 12월말에 다소 진전된 SOFA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성들의 요구는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SOFA 개정운동은 2001년에도 진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남게 되었다. SOFA 개정운동은 본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한 연대활동이 있으나 사무국의 인력부족으로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운동의 성과도 공유하지 못한 한계와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①태항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운동: 이길현숙 대표가 공동대표로 적극 활동했다. 이 운동은 SOFA개정활동과 동시적으로 또는 별개로 치열하게 전개되어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갔다. 이 결과 기총사격장 폐쇄 등의 소극적 개선을 얻어냈으나 근본적인 주민들의 요구인 폭격장 폐쇄라는 목표는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태항리 폭격장 주변의 민산도 여성들이 겪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왔으나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 대중적 관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참여는 저조했으며 본회 사무국의 업무과다로 인해 사무국과도 체계적으로 결합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말았다.

②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2000년에는 지뢰피해와 현황을 집계하고 몇몇 피해자를 방문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하는 것 이외에 크게 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③통일교육협의회: 급박하게 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일교육협의회 결성 초기부터 본회가 개입하여 통일교육에 있어서의 본회의 위상을 알릴 수 있었다. 특히 이길현숙 공동대표가 통일교육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본회가 통일교육협의회를 통한 통일교육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④총선시민연대: 본회는 총선시민연대에서 개최하는 유권자한마당 등의 집회

에 사무처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특히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본회의 1999년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활동 성과와 관련된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지난 1999년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 국방위원회 간사단체의 역할을 수행한 평화역성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의 관련 영역과 같이 국방에 관련된 영역도 국민의 알 권리와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방청비용과 함께 성역고수에 대한 문제제기, 투명성과 정보공개 등을 요구하였다. 방청불허를 할 경우 다음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밀유지와 보안의 필요성으로 방청불허를 집행하자 국방위원회모니터활동을 포함한 국감시민 연대활동이 총선시민연대활동에 반영하였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한영수 의원이 이번 총선시민연대 활동에서 낙선낙선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③ 과제

㉠연대활동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본회 전체 차원에서의 공유가 미비하였다. 앞으로 연대활동에 참석할 경우, 일시, 장소,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무처에 보고하고 반드시 문서화할 것이 요청된다.

㉡다양한 연대활동과 시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활동이 본회의 역량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 주력해야할 연대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III 각 위원회 사업평가

1. 정책기획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김정수
- 위 원: 공동대표, 각 위원회 위원장, 김귀옥, 박현선, 조영희

(2) 사업목표

- ①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및 정책제시
- ② 여성평화운동의 수행을 위한 장단기적인 정책개발
- ③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제시 활동

(3) 사업내용

1) 회의

① 제1차 정책기획위원회

- 일시: 2000년 6월 13일(화) 오후 6시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의실
- 참석: 이기현숙, 김은옥, 최만자, 조영희, 김귀옥, 윤미향, 김숙임, 김정수
정경란, 김화숙, 김은희
- 내용: 제2회 여성평화통일포럼 내용 토의(남북여성교류와 여성단체의 역할), 정상회담 수행자 조찬모임 또는 토론회 기획 (장상/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 초청) 및 정상회담이후 대중사업관련 논의 (은거래평화대행진과 결합하여 6월 25일 전후 국민의 희망과 참여를 통한 북한 어린이 및 전쟁 피해어린이 돕기 ARS 모금 방송, 평화의 배 띄우기-인사동을 비무장지대로 참여, 여성평화통일단축마라톤, 평화문화선언 2000 서명 받기, 무기정난

감을 평화상징물로 바꾸기, 업서 보내기, 북한노동·출마당)

② 제2차 정책협의회

- 일시: 9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김정수, 정현택, 이김현숙, 김윤옥, 김숙임, 박현선, 정경란, 김은희, 김화숙
- 내용: 6.15 공동선언이후 탈북여성과 대화모임의 위상 및 방향검토의 필요성 논의, 탈북여성모임에 대한 평화여성회의 방향 논의.
6.15 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남북여성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함께 탈북여성들과의 대화모임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대화모임을 왜 하는가/ 현재 이 모임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이 모임을 책임질 것인가를 논의. 평화여성회의 전체 방향 속에서 탈북여성과의 모임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입장 정립 모색.

③ 정책기획 모임

- 일시: 7월 13일 4시 30분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윤옥, 정현택, 김정수, 정경란, 김화숙, 김은희
- 내용: 제2차 여성평화통일포럼 '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제출된 원고 검토.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여성교류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

④ 정책기획 모임

- 일시: 8월 10일 오전 11시 장소: 현대백화점 커피숍
- 참석: 이김현숙, 김정수, 김귀옥, 정경란
- 내용: 8월 14일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에서 발표할 6.15 공동선언을 실천을 위한 여성들의 실천과제에 대한 논의

2) 사업(평화통일위원회 참조)

(4) 평가와 과제

1) 평가

- ① 모임이 현안 특히 여성평화통일모임에 대한 정책 제시 및 사업 개발에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 ② 주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인 사업개발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평화, 통일운동 수행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
- ③ 현안에 대한 정책 및 실천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의 입장을 공론화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제공하였다.

2) 과제

- ① 여성평화통일전문단체로서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맞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안에 초점을 맞춰 정책토론이 진행되어 중장기적인 평화여성회 정책개발과 함께 급변하는 통일정세에 맞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설적인 정세 평가와 함께 정책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서 정책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② 정책개발과 함께 정책을 여성운동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확보가 중요하다. 사안에 따라 여성단체들 사이에 경쟁과 중복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해 평화와 통일 분야에 대한 타 단체들과 정책협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여성운동단체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평화통일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해야한다.

2. 평화통일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고은실
- 위 원 : 박현선, 배옥병, 안수경, 윤수경, 장도송, 윤미향

(2) 사업목표

- 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② 남북한의 통합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전개
- ③ 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전개

(3) 사업내용

1) 회의

① 제1차

- 일시: 2000년 3월 7(화) 오후 4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고은실, 장도송, 윤미향, 박현선, 안수경, 김숙임, 정경란
- 불참: 배옥병, 윤수경 · 안식년 고은경순(재미)
- 내용: 북한여성 지원사업 논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여성과 어린이 돕기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북한 여성 실태에 대한 조사하기로 함. 종류는 옷감, 옷, 산모 영양제, 탈지분유 등. 사업 방식으로는 ARS를 통한모금과 기업 후원 등도 검토하다. 여성평화통일포럼은 통일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 4회 개최, 남북한 여성교류의 실태와 방향, 북미 북일 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북한 여성 지원과 여성단체의 참여, 북한 사회 여성의 지위 등이 주제로 제안됨. 위원 보강논의

② 제2차

- 일시: 2000년 6월 12(월) 오전 10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장도송, 박현선, 안수경, 김숙임, 정경란

- 내용: 제2회 여성평화동일포럼에 관한 논의(주제: 북한 여성 실태 및 지원 현황과 여성단체의 역할로 결정)와 정상회담 이후 평화통일관련 대중사업으로 거리 캠페인,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민화협 행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평화문화선언 2000 서명 받기, 무기장난감을 평화상징물로 바꾸기, 업서 보내기 등이 제안되다. 평화통일위원회 강화 문제 논의

③ 제3차

- 일시: 2000년 11월 28(화) 오후11시 30분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안수경, 정경란, 윤수경
- 내용: 2000년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논의, 위원회 강화문제 논의

2) 여성평화동일포럼(정체기회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사업진행)

1) 제1회

- 일 시: 2000년 5월 16일(화) 오후 2:00-5:00
- 장 소: 세종문화회관 전략회의실
- 참석인원: 70-80명
- 내용: ①주 제: 남북정상회담: 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
 - ②발 표: 정상회담의 배경과 전망 - 서동만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여성의 요구와 역할 - 정현백 상임대
 - ③논 평: 황인성 (동북아평화연구소 연구위원)
이미경 (새천년민주당 의원)
 - ④사 회: 이김현숙 공동대표
- 정상회담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수립해 “남북정상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여성들의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건의문 작성 소위를 구성하고 이를 완성하는 여성단체와 개인을 포함해 정부와 언론에 전달하기로 결정하다.

2) 제2회

- 일시: 2000년 7월 12일(수) 오후 2-6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4층)

· 참석인원: 70-80명

· 내용 (주제: 남북여성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① 발표: 남북여성교류가 남북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김귀옥,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남북여성교류의 방향과 과제

(김윤옥,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실행위원)

② 논평: 조 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금순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③ 사회: 이길현숙 공동대표

④ 제3회

· 일시: 2000년 12월 15일(금) 오후 2-5시

·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4층)

· 참석인원: 40-50명

· 내용 (주제: 북한여성, 어떻게 만날 것인가)

① 발표: 북한여성,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김귀옥,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남한여성,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길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② 논평: 신준영 (월간 딸 기자) / 윤덕희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③ 사회: 장남식 (한국여성연구소 부소장)

3) 북한여성실태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북한여성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여성의 실태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정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정경관 정책국장이 자료를 수집하고 평화여성회 소식지(2000년 가을호)에 실었다.

4) 비선행사업: 북한돕기사업이 제기되었으나 여성단체의 모금운동의 현실성과 평화여성회의 조직역량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시되지 못했다. 또한 국방부 시민감시문제는 평화단체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평화여성회 역시 국정감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

(4) 사업평가

1) 성과와 한계

- ①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성들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성평화통일포럼을 개최와 6.15 공동선언에 대한 여성들의 실천과제를 제안함으로써 남북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한의 공존과 화해협력에 위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다. 특히 여성 평화통일포럼은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서 평화여성회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 ②여성평화통일포럼 등에서 제시된 여성들의 입장을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등 여성들의 요구가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 ③여성평화통일포럼은 평화와 통일에 관심 있는 활동가와 전문가 및 회원들에게 평화여성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 과제

- ①변화하는 통일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평통위는 평화여성회의 평화통일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이 미약했다. 따라서 평통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여성평화통일포럼 등 사업이 평통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서 정책기획위원회 등 타위원회가 사업 수행에 많은 기여를 했다. 따라서 평통위 조직적관은 그 자체의 강화, 타위원회와 통합문제, 작업반 수준으로 전환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②평화통일사업이 여성단체 사이에 충분한 논의 속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여성 단체들 사이에 비슷한 사업이 논의 없이 진행됨으로써 역량이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 ③통일관련 교육사업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통일교육협의회가 발족되면서 통일 교육을 위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평화여성회는 여성의 관점에서 6.15 실천과제, 북한사회와 북한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남북

통일정책, 남북관계 등에 대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여성활동가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④ 여성평화통일포럼이 각계 전문가와 활동가 중심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 되도록 기획되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활동가보다는 관심 있는 일반여성 중심의 포럼으로 바뀌었다. 여성평화통일포럼의 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평화교육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이은선
- 위 원 : 강선미, 강순원, 곡분여, 문화영, 박애경, 백미순, 최영숙, 김정수

(2) 사업목표

- ① 평화의식과 통일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화교육 실시
- ② 평화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평화운동 여성지도력 개발
- ③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활동 전개

(3) 사업 내용

1) 회의

① 1차

- 일시: 2000년 3월 3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 이은선, 박애경, 김정수, 김숙임, 김화숙
- 내용: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봄 강좌와 평화기행 검토, 여성통일 아카데미 논의, 평화교육 심포지움의 틀과 방식에 대한 논의, 회원 확보

㉔ 2차

- 일시: 2000년 6월 7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 이은선, 박애경, 김정수, 최영숙, 김숙임, 김화숙
- 내용: 여성평화아카데미, 평화기행 보고, 평화교육 검토, 위원 추천 등

㉕ 3차

- 일시: 2000년 9월 15일(금) 오후 7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의실
- 참석: 이은선, 박애경, 김정수, 최영숙, 김화숙
- 내용: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주제발표를 독일, 일본, 북아일랜드 사례 중 심의 가능한 2명을 하기로 하고, 한국측 발표자는 전교조와 평화여성회 2명을 하기로 함. 여성평화아카데미(2000년 가을 강좌)는 적당한 장소를 알아보기로 하고 프로그램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평화기행은 10월 14일(토)로 확정짓고 메탈리 일대에 가며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함

㉖ 4차

- 일시: 10월 13일(금) 오후 7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의실
- 참석: 이은선, 박애경, 김정수, 최영숙, 김화숙
- 내용: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움" 주제발표를 International Alert과 AFSC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발표자와 상의하기로 하고 장소, 발표비 등을 확정지음. 또한 평화여성회 교육위원의 발표는 김정수 위원이 발표하되 내용은 김화숙, 안수경과 함께 논의하기로 함.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 가을 강좌 프로그램은 사무처에서 제안한 바대로하기로 함. 평화기행은 메탈리와 평화여성회 사무처 일정과 관련해 12월 이후로 연기하기로 함.

⑤ 5차

- 일시: 11월 27일(월) 오후 7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의실
- 참석: 이은선, 박애경, 김정수, 최영숙, 김숙임, 김화숙
- 내용: 위원회 사업 평가

⑥ 6차

- 일시: 2001년 1월 9일(화) 오후 7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 이은선, 박애경, 김정수, 임희숙, 김화숙
- 내용: 2001년 교육위원회의 사업방향과 내용 검토

2) 여성평화아카데미 2000년 강좌

(여성평화 아카데미-평화운동 여성전문인력 훈련과 개발)

- ① 목적: 유연이 지정한 '2000년 세계 평화문화의 해'와 2001-2010년 '세계 평화의 문화와 어린이들을 위한 비폭력 10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사회전반의 반평화 폭력구조를 변화시켜 평화문화 정착을 실천하는 여성 인력을 훈련하고 개발한다. 또한 여성주의 관점에서 평화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토대를 구축하며 평화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평화의식 확산과 다 단체의 평화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도모한다.

② 봄 강좌

- 기간: 2000년 4월 27일-7월 6일 매주 목요일 총 10회 강좌
- 장소: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
- 내용

③주제 1: 왜 '평화'를 말하는가?

어떻게 '평화'에 접근할 것인가?-평화 개념과 평화 철학(4/27, 김옥숙)
 세계평화운동의 흐름과 21세기 평화운동의 과제(5/18, 이길현숙)

①주제2: 평화와 통일

- 지구화와 세계군사화(5/4, 임필수)
- 동북아 체제와 한반도 냉전구조(5/25, 서동만)
-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운동 보기(6/1, 김창수)

②주제3: 평화와 인권

- 반평화의 인권 유린(6/8, 김정수)
- 반평화 피해자의 목소리와 인권(6/29, 정유진)

③주제4: 평화와 여성

- 군사주의와 여성(6/15, 권민숙)
- 일상의 반평화와 여성(6/22, 김현미)
- 여성평화운동의 방향과 과제(7/6, 정현택, 김현선, 정경란)

② 가을 강좌

- 일시: 11월 23일(목) 오후 1시-25일(토) 오후 5시
- 장소: 수유리 원불교 봉도 청소년수련원
- 내용: 여성 · 평화 · 그리고 일상

날짜	프로그램	강사
11월23일(목)	특강: 평화의 프리즘을 통해 본 최근 남북관계	조민(통일연구원교수)
	영화로 말하는 영화이야기	
	여는 강의: 여성의 목소리로 평화 말하기	이김현숙(공공대교)
	어울마당	
11월24일(금)	주한미군, 여성에게 무엇인가	김현선(새움터 대표)
	평화와 젠더(gender): 일상의 공포정치, 여성에 대한 폭력	정희진 (여성과인권연구회 연구원)
	여성평화의 눈으로 영화 탐색하기	
	'빠르기'가 강요하는 전쟁화와 역할	김은정(장애여성공진)
	모듬별 창조시간(칸타스트리아)	
11월25일(토)	우리 안의 반공주의의 최로판 읽기	권혁병(대전대학교교수)
	강등! 칸초와 해결의 길을 찾아서	김정수, 박수선 (평화여성회, 교육위원)
	모듬별 칸타스트리아 발표	

3) 2000년 세계 평화문화의 해 기념 여성평화행진(평화기행)

①목적: 유엔이 정한 '평화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한반도의 반평화 현장을 직접 느끼게 함으로써 평화운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평화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케 한다.

②시기: 6월 17일(토)

③장소: 판문점과 과주 금과리 일대

(경순항중->과주 금과리->화석정->정의선 철도 종단점->임진각->판문점)

④참여: 평화여성회 회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 회원, 일반 참여희망자 90여명

⑤지도: 이지누(평화기행 전문가), 자료제공

4)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①취지 및 목적:

-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에서 분단을 넘어 통일을 준비하고 관용과 공존을 위한 평화교육 방법론을 개발한다.
- 외국의 평화·통일교육 사례를 배우고 이를 한반도의 상황에 적용시킨다.
- 기존 우리나라 통일·평화교육을 점검하여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일상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평화·통일 분야에서 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는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②심포지움 진행

- 일시: 2000년 11월 7일(화) 오후 1-5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 주최: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교육위원회
- 후원: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참가: 여성단체, 통일·평화단체, 평화여성회 회원 등 170여명 참석
- 내용: ㉠사회: 이은선(본회 교육위원장)

㉑인사말: 정현택(본회 상임대표)

㉒주제발표 - 여성과 평화교육: Ancil Adrian-Paul (International Alert)

- 평화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AFSC의 평화교육:

Karin Le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 통일·평화교육의 실행-학교의 통일교육:

이장원(전고조 통일국장, 평화화해통일교육모임(준), 영신고 교사)

- 한국여성평화운동의 평화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김정수 (본회 교육위원)

㉓논평: 임희숙(이화여대 강사)

김귀옥(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㉔질의응답 및 전체보고문

5) 위원 보강: 김숙임(본회 사무총장), 임희숙(이화여대 강사, 교육학)

6) 미실행 사업

① 여성통일아카데미(남북한 여성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여성통일교육)

② 하반기 평화기행

(4) 사업평가

1) 성과

①여성평화아카데미 강좌는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과 평화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으며 특히 여성주의적 관점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평화여성회의의 독특한 평화교육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교육 내용과 방식이 다양화되고 부드러워지면서 강좌 참여자들이 좀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아 이후 교육 프로그램에의 지속적인 참여와 평화여성회의와의 관계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좌 참여자가 단체 활동가일 경우, 여성평화아카데미의 내용과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사를 비쳐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②평화여성회의 대표적인 대중사업인 평화기행에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것(90여 명)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기행 코스의 탄탄함과 전문적인 안내자(이지누)가 동행함으로써 평화기행의 내용적인 측면을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봄에 이루어진 관문길과 파주 금과리 일대의 평화기행은 참여자들의 분단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화여성회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③심포지움은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 단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 이와 같은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는 자리도 되었다.

2) 과제

①일부 위원들만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되 새로운 위원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묶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②여전히 여성평화아카데미가 대중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단체 활동자들 이외 대중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예는 대상 확대에 따른 교육 방법의 다양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강의식 프로그램이 갖는 비대중적인 면을 지양하여 참여자들이 직접 강의를 이끌어 가는 내용과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가을 강좌의 칸타스도리아나 영화보고 토론하는 마당이 참여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유도한 점으로 미루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내부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의식 프로그램일 경우 강사의 진행 기술이 참여자들의 호응 도를 좌우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후의 사업에 이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이들이 각자의 장에서 평화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평화아카데미가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③평화기행 참여자들의 수가 많았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이러한 기행이 자칫하면 진학 수

준에 맞출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90여명의 많은 인원이 많은 것을 공유하고 느끼기란 어려우며, 버스 2대로 이동하게되어 안내자가 지속적으로 함께 하지 못한 공간에 있던 사람들에게 풍부한 생각거리를 제공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후 평화기행은 좀더 소규모적이라도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평화기행의 목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해야할 것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직접 역할을 하는 이벤트를 보장함으로써 좀더 흥미유발을 할 필요가 있다.

- ④전체적인 진행이 학술 토론 성격과 전문가 중심의 화상 성격의 중간에 머물러 심포지움의 성격이 어중간 한 점이 대부되었다. 앞으로는 이를 보장하여 평화교육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시키는 지점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전체토론 시간이 부족해 참여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없었기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⑤하반기에 가기로 한 때향리 현지의 사정과 사무처 일정으로 인해 하반기 평화기행이 내년으로 연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전체 일정을 미리 조정해야 할 것이다. 제4차 총회에서 계획한 여성통일아카데미(남북한 여성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여성통일교육)를 제정의 미확보와 참여자들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2000년에는 통일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4. 국제협력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이길현숙
- 위원: 권혜순, 김미연, 노길림, 홍승희, 박수선, 이아람, 황유정
- 재외위원: 신은옥, 구춘희

(2) 사업목표

- ①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
- ②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계 형성
- ③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역문화와 홍보활동
- ④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3) 활동계획

- ①아셈2000 민간포럼 한국준비위원회 평화분과 간사단체 활동
- ②AFSC와 갈등해소를 위한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및 공개워크샵
- ③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
- ④영문 홍보활동
- ⑤국제여성평화운동 연구모임 구성
- ⑥21세기 한반도 평화운동전략개발을 위한 분쟁지역의 갈등해소와 평화건설 사례연구 워크샵

(4) 사업내용

1) 회의

① 제1차

- 일시: 2000년 3월 3(금) 오후 3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이현숙, 노길림, 홍승희, 김숙임, 정경란
- 사임 표명: 정숙자, 윤정숙
- 내용: 5.24 세계 여성 평화와 군축의 날 행사 논의
(대주제: 2000년 평화문화를 여성의 손으로. 이제는 평화문화다. 슬로진: 남북한 군비축소와 여성복지 확대, 분단과 외국인 주둔에 의한 여성폭력 근절, 여성의 손으로 남북화해문, 언론 홍보 필요성 제기) 갈등 해소 워크샵 및 갈등해소 전문가 훈련 공유, 참가자 제안, 세계 분쟁지역 평화대행진 - 오키나와 방문 제시, 국제협력위원회의 강화, 회원확대 등 논의

② 제2차

- 일시: 2000년 8월 11(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이김현숙, 노길림, 홍승희, 정경란
- 내용: "여성과 평화" 국제회의의 발표자, 토론자, 관련단체 섭외 및 진행과

정 점검 및 대책 논의, 영문소식지 발행에 대한 논의

③ 제3차

- 일시: 2000년 11월 20(월) 오후4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무실
- 참석자: 이현숙, 홍승희, 정경란

- 내용: 2000년 사업 평가와 2001년 사업 계획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실시, 인도 국제여성평화운동가 모임 3월 말, 국제협력위원회 강화, 세계평화기행, 어린이, 청소년 평화교육(갈등해결 교육과 연결)

2)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프로그램 및 공개워크숍

- * 미국진우봉사회(APSC), 평화여성회, 한국어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주최로 15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는 18개월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주제에 따라 공개워크숍을 병행하기도 한다.
- * 평화여성회 프로그램 참가자: 김경수, 박수선, 정경란

① 갈등해결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실시

- 일시: 6월 9일-10일
-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내용: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프로그램 소개 및 일정논의
갈등해결 관련 기술 훈련 (적극적 청취법, paraphrasing, 3차개입 등) 스캇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대표 강연(남북한 협상전략의 주요특질, 남북한 협상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과정에서 갈등해결의 역할 등)

② 독일통일과 갈등해결 국제심포지엄 및 훈련프로그램

가) 국제심포지엄

- 일시: 7월 25일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후원: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주제발표 ③통일의 사회심리학적 의미

- 폴란드 바인(예전 한국연구소 소장), 루스 미셀마이트(베를린 알트-판코브 교회 목사), 이장호 서울대교수, 정현택 대표

㉑ 통일에서 갈등해결의 역할

- 안젤라 마이랄리(포츠담 대학 응용과학 연구소 교수) 안젤리키 시에질스키(예술치료사, 중재전문가) 김용한 한남대 교수

· 사회: 이길현숙 공동대표

· 참석: 90여명

나) 갈등해결 훈련 참가자 훈련프로그램

- 일시: 7월 26일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 내용: 독일통일경험과 갈등해결 관련 기술훈련

㉒ 갈등-분쟁 해결 훈련 프로그램

- 일시: 9월 23일-27일 장소: 성가수녀원
- 내용: 장영진 (조지 메이슨 대학 박사과정)씨의 지도로 중재, 협상, 국제적 분쟁해결 등 개념정리와 이에 따른 role play 시행, manual을 통한 기술훈련 프로그램 실시.

㉓ 여성과 갈등해결 워크샵

- 일시: 11월 3일-4일 · 장소: 아카데미 하우스
- 진행: INTERNATIOANL ALERT의 안실 아드리안 봉과 이길현숙대표
- 첫째날(3일): 워크샵 목적과 의제 확인, 참가자 사귀기, 성역할과 활동에 대한 퀴즈, 갈등과 상-경험 나누기, 여성들의 향상시키기, 연습
- 둘째날(4일): 일정소개, 첫째날 복습, 여성과 갈등에 대한 신화 토론, 갈등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요구, 갈등상황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예(2국), 갈등해결을 위한 여성전략, 힘기르기 게임 등

㉔ 갈등해결 프로그램-갈등해결 훈련을 위한 유용한 도구와 방법

- 일시: 12월 17일-18일 ·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9층
- 주제: 갈등해결 훈련을 위한 유용한 도구와 방법
- 강사: 바바라 위인(미국 평화연구소)

- 목표: 각국의 성공적인 갈등해결 방법론, 접근방법 및 워크샵 형태 실습을 통해 한국적인 갈등해결 훈련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분석기술을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
- Institute for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Gerge Mason University(미국) : 도표 그리기 방법론
- Stockholm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스웨덴)
- Canadian Council for Adult Education (캐나다): "아하" 학습방법(변화를 그리면서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하는 방법)
- Freire Institute for Critical Analysis and Empowerment(브라질)의 분석질문

3) "여성과 평화" 국제심포지엄 개최

-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4시 (동시통역)
- 장소: 건국대학교 재친년관 대공연장
- 목표: 2000년 세계평화문화의 해를 기념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여성평화운동의 경험을 배우며, 양 지역의 여성평화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국내 평화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한다.
- 사회: 이길현숙 공동대표
- 주제발표: 21세기 평화와 안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법-인간안보와 화형성을 위한 지도력(Rosario Padilla,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국제부대표)
- 토론: 평화교육과 여성(카트리오나 루안, 민중의 축제-벨레스트 의장, 북아일랜드), 통일과 여성(정현덕,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한국), 동북아 평화건설을 위한 일본여성의 관점-미군기지와 여성안보(에이코 아사노, 군사주의 폭력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행동, 오키나와)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연대 (크라슨 과블로스, 비핵필리핀동맹 사무총장, 필리핀), 평화와 협력을 위한 중국여성의 제언(조 사오궈야, 전중국부녀동맹 국제연락부 부대표, 중국)
- 참석: 100여명
- 아젠 2000 민간포럼 평화문화와 여성분과의 협력하에 진행

4) 아셈 2000 민간포럼 평화분과 간사단체 활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와 함께 아셈 2000 민간포럼 평화분과 간사단체로서 활동을 했다.

① 요한갈통 초청 간담회

- 일시: 5월 18일 오후 7시 장소: 경실련 회의실
- 내용: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에 대한 미래
- 참석: 40명

② 아셈 2000 민간포럼 (10월 18-21일)

해외 참석자 리셉션(17일)

개막식(18일) : 이길현속 공동대표 평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평화분과 등 13개 분과의 워크샵(18-19일)

아셈서울행동의 날: 정경관 참석(20일)

DMZ 방문: 이길현속, 정경관(21일)

③ 평화분과 워크샵 - 아셈 2000 민간포럼 평화분과와 공동조직(통시통역)

· 일시: 10월 19일 9시-1시 30분 - 장소: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

· 워크샵 1: 미국의 전략과 인간안보

사회: 이상열(숭실대교수)

기조발제: 월튼 펠로

토론: 카말 미트라 제노이(인도, 야와하랄 네루대학 교수)

이상성(한국, 카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마틴 브록(무기거래반대 유럽네트워크, 네덜란드)

김용현(불평등한 SOFA개정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소자티 디지완도노(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연구소, 인도네시아)

· 워크샵 2: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의 평화

사회: 이장희(한국외국어대 교수)

기조발제: 서동면(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토론: 히로우메야시(일본, 퍼스디모)

다오 쉐차오(중국, 중국사회과학아카데미 미국연구소)

페르테스키 라즈로(헝가리, 알바코)

이정옥(국제민주연대 대표)

5) 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 개최

5월 16일, 2시 세종문화회관 전라회의실에서 제1회 여성평화통일포럼과 공동으로 개최

6) 밀레니엄 포럼

- 일시: 5월 22일-26일 장소: 뉴욕 유엔 본부
- 참석: 정경관
- 내용: '평화와 안보' 분과 회의를 참석하고 '한국평화단체의 호소문',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NGO 호소문'을 외국 참가자들에게 배포하고 서명을 받았다. 추후작업으로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NGO 호소문'을 일본의 Hague Appeal for Peace Japan은 미국, 중국, 한국 대사관, 일본 총리실, 북한 중앙통신에 전달하고 평화여성회는 미국, 중국, 일본 대사관과 한국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

7) 안보를 제 규정하기 위한 국제여성정상회의

- 일시: 6월 22-25일'
- 참석: 이길현숙 대표
- 내용: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와 미국 여성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 회의에서 '군사주의와 여성'문제를 다루며 여성들 사이에 연대 확인

8) SOFA개정을 위한 방미활동 및 여성계 요구안 클린턴 대통령께 서한 발송

- 일시: 9월 25일-10월 2일
- 참가: 이길현숙 대표
- 내용: SOFA 전면개정을 위한 로비투어를 통해 SOFA의 불평등성을 알려 내고 여성인권 조항 신설을 요구

9) 국제여성평화운동 세미나

① 구성원: 이김현숙, 김정수, 홍승희, 박수선, 권혜순, 이아람, 황유정, 이관실, 정경란

② 제1차 국제세미나

- 일시: 3월 30일 6시 30분 장소: 여성교회 사무실
- 참석: 이김현숙, 김정수, 정경란, 이아람, 이관실, 황유정
- 내용: 커리큘럼 검토

③ 제2차 세미나

- 일시: 4월 14일 7시 장소: 여성교회 사무실
- 참석: 이김현숙, 김정수, 정경란, 이아람, 황유정
- 내용: 1995년 베이징 대회 행동강령 중 '여성과 무장갈등' 부분 검토

④ 제3차 세미나

- 일시: 5월 3일 7시 장소: 여성교회 사무실
- 참석: 이김현숙, 김정수, 이아람, 황유정, 정경란, 홍승희
- 내용: "세계의 화두"(이대훈 지) 평화, 인권, 여성 부분 검토 1

⑤ 제4차 세미나

- 일시: 5월 12일 7시 장소: 여성교회 사무실
- 참석: 이김현숙, 이아람, 황유정, 정경란, 박수선, 권혜순
- 내용: "세계의 화두"(이대훈 지) 평화, 인권, 여성 부분 검토 2

⑥ 제5차 세미나

- 일시: 7월 18일 4시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이김현숙, 김정수, 이아람, 박수선, 황유정, 홍승희
- 내용: 오키나와 여성정상회의 설명서 및 밀러니엄포럼 선언서 행동강령 검토

5) 미실행사업

21세기 한반도 평화운동전략개발을 위한 분장지역의 갈등해소와 평화건설 사례 연구 워크샵과 영문 홍보활동

(4) 성과와 과제

1) 성과

- ①국제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의 목소리 제시: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관련 설명서 및 동북아 평화정책 평화 NGO 호소문 배포하고, SOFA 재정을 위한 방미 활동 및 여성인권 보호조항 신설을 요구하며, 오키나와 여성정상회의에서 여성평화단체들과 군사주의 문제를 논의하고 설명서를 채택하는 활동 등을 통해 평화 형성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관련 정부 관계자와 평화단체 및 일반시민들에게 전달했다.
- ②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및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여론화와 홍보활동: “여성과 평화” 국제심포지엄, 오키나와 정상회의 참가를 통해 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를 확대하고 한국여성평화운동을 소개했으며, 아셈 2000 민간포럼 간사단체로서 활동을 통해 평화운동단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평화운동의 국제연대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제연대에 대한 경험을 얻게 되었다.
- ③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회원들 사이에 평화운동 연구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 수차례 국제세미나를 진행하고 세미나 회원을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④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해소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했다.

2) 과제

- ①국제: “여성과 평화” 국제심포지엄, 오키나와 정상회의, 밀레니엄 포럼 등 국제회의를 통해 얻은 정보와 인적 관계를 토대로 국제여성평화네트워킹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성과 평화여성회를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는 영문 브루서, 영문 홈페이지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여성)평화운동의 동향을 정리하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 ② 국내 아셈 2000 민간포럼을 통해 국내 평화단체, 여성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국내NGO와 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연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③ 조직: 국제위원회 세미나를 통해 인적자원을 확보했으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협력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영어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한다.

5. 재정조직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윤명선 부위원장: 서미숙
- 위 원: 이낙호 최경원 박형욱 김경화 전은주 김옥걸 (최현숙 : 활동 못함)

(2) 사업목표

- ① 소모임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회원활동 강화
- ② 회원, 후원회원조직 정비와 관리를 통한 재정 활성화
- ③ 평화이성회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

(3) 사업내용

1) 회의

① 제1차

- 일시: 2월22일(화) 오전 11시-1시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윤명선 박형욱 서미숙 이낙호 김숙임 김은희
- 내용: 부위원장 선출, 5명이상 회원확대 결의, 후원회원 2명 확보와 재정 위원 1명씩 추천하기로 함

② 제2차

- 일시: 4월18일(화) 오후5시-7시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서미숙 이낙호 김숙임 김은희
- 내용: 회원확대사업 점검, 재정사업논의, 진달래.무궁화 모임 일정확정

③ 제3차

- 일시: 6월2일(금) 오후3시-6시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윤명선 서미숙 최경원 이낙호 김숙임 김은희
- 내용: 회원확대사업 점검, 재정사업(매실농속역판매)논의, 진달래.무궁화 평화캠프 논의

④ 제4차

- 일시: 7월18일(화) 오후3시-6시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윤명선 서미숙 이낙호 김은희
- 내용: 회원.후원회원 확보에 관한 건, 재정위원 보강, 수익사업개발, 평화 캠프

⑤ 제5차

- 일시: 8월24일(수) 오전10시-1시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서미숙 이낙호 김은희
- 내용: 평화캠프, 매실농속역 판매, 제6차 모임 일정과 내용논의

⑥ 제6차

- 일시: 11월8일(화) 오후4시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윤명선 서미숙 김은희
- 내용: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일정논의,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논의

⑦ 제7차

- 일시: 11월21일(화) 오후10시30분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윤명선 서미숙 이낙호 정현택 이김현숙 김은희
- 내용: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1차논의, 2000년 사업평가

㉔ 제8차

- 일시: 12월19일(화) 오후3시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윤명선 서미숙 최경원 이현숙 김은희
- 내용: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2차서무일정논의, 2000년 사업평가

㉕ 제6차

- 일시: 11월8일(화) 오후4시 장소: 본회 사무실
- 참석: 윤명선 서미숙 김은희
- 내용: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일정논의,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논의

2) 진달래와 무궁화 모임

① 사업목적 : 탈북여성 후원 모임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② 사업내용

㉑ 제1차 모임

- 일시: 3월21일(화) 오후6시 장소: 최경원 무궁화회원의 집
- 참석: 장인숙 조연지 김초미 서창은 최금란 이예란 최영주 김금옥 이옥금(진달래9명) 윤명선 최경원 서미숙 권혜순 박금혜 이낙호 장도송(무궁화 7명) 김귀옥 박현선 김정수(연구원3명) 김숙임 정경란 김화숙 김은희
- 내용: 생필품나누기, 진달래·무궁화 팀장 임기 1년 연임 결정, 주세벨 대화 - '가족이야기: 가족은 애정의 공동체인가? 인생의 걸인가?', '흔들리는 아버지, 흔들리는 남편'

㉒ 제2차 모임

- 일시: 4월25일(화) 오후6시 장소: 김초미 진달래회원의 집
- 참석: 김초미 서창은 최영주 이재관 이정옥 주영희 이옥금(진달래 7명) 이우정 최경원 권혜순 이낙호 김숙임 김은희(무궁화6명)
- 내용: 먹거리 나누기와 생활나눔
주세벨대화 - 바람직한 건강관리 (강사: 이낙호 무궁화회원)

㉔ 제3차 모임

- 일시: 6월 2일(금) 오후6시 장소: 평화의 집 지하교육실
- 참석: 장인숙 김초미 서창은 이재관 이옥금 김금옥 서순희 최덕순 김옥란(진달래9명) 이우정 최경원 윤명선 서미숙 박금혜 이낙호 김숙임 김은희(무궁화8명)
- 내용: 주제별대화 - 여성평화 운동(강사: 정현택 상임대표)
 먹거리를 통한 생활나눔

㉕ 제4차 모임

- 일시: 7월13일(목) 오후6시 장소: 박형욱 무궁화회원의 집
- 참석: 장인숙 김미자 최영주 장계옥 김옥란 김금옥 김초미 이옥금 이재관 최덕순 서창은(진달래11명) 윤명선 박형욱 최경원 이낙호 박금혜 정춘자 이현숙 김은희(무궁화8명)
- 내용: 삶나누기와 주제별대화 - 나를 즐겁게 하는 놀이 문화

㉖ 제5차 모임 (진달래, 무궁화 평화캠프)

- 일시: 10월26일(목)-28일(토) 장소: 설악산 추암하우스
- 참석: 장인숙 서창은 조연지 최금란 김초미 최영주 김금옥 이옥금 장계옥 김옥란 최덕순 박선옥 김소용 김승희 홍영희(15명) 윤명선 김은희 김선희 권오영 이낙호 정경자 박금혜 김숙임 유은옥 정춘자 노길림 정경란 정현택 김은희 (14명)
- 내용: 평화여행(통일전망대, 바다, 설악산), 건강하게 사는 법, 가족치료 마음과 몸으로 평화만들기

㉗ 제6차 모임

- 일시: 12월18일 장소: 이우정 무궁화 회원 집
- 참석: 장인숙 서창은 조연지 최금란 김초미 최영주 김금옥 이옥금 장계옥 김옥란 최덕순(11명) 윤명선 이낙호 박금혜 김숙임 유은옥 정춘자 정현택 김은희 (8명)
- 내용: 삶나누기, 생필품 나누기

3) 평화진구만들기 2000 캠페인

- 기간: 2월-6월

- 목적: 현재 회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리하여 실제 회원을 확보한다
상반기 중 새 회원을 320명 이상 확보하고 올해 실질 회원이 500명이
되도록 노력한다.
- 목표: 각위원회(6개) 35명의 위원이 5명의 신입회원을 추천 (175명)
정회원(위원이 아닌 회비납부자 기준) 50명이 2명의 신입회원을 추천
(100명) 대표/사무총장 3명이 10명의 신입회원을 추천(30명) 실무자 3명
이 5명의 신입회원을 추천(15명)⇒총320명 / 소액다수 후원회원을 20명
확보하여 회비 수입을 2,900만원에서 최대 4,200만원을 확보하기로 함
- 내용: 기존 회원을 분석(1999년 회비현황과 회원활동현황 등)과 캠페인
브로서 제작과 발송 대원 회비 현황 분석과 회원확보 현황 체크, 각위
원이 회원확보 결의
- 진행(신입회원): 김숙임(회원8명과 후원회원 1명) 이기현숙(회원2명)
김화숙(회원3명, 후원회원 1명) 정경란(회원2명 후원회원 1명) 박유희
(회원2명) 김정수(회원2명) 박금혜(후원회원1명) 김기옥(회원1명) 김은희
(회원3명) ⇒ 정회원 21명 후원회원 4명

4) 매실농축액 수익사업

- 목적: 매실의 효과적인 치유성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 계속사업(매년)
으로 진행할수 있는지 실현적으로 진행해 본다.
- 진행방법: 준비기금을 확보(투자기금)하여 진행 ⇒ 1,500,000원 확보
(200g : 75명 / 판매가 40,000원)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에
서 판매하기로 함

(4) 2000년 사업계획 중 미실행 사업

- ① 후원자와의 밤 개최
- ② 회원확대를 위한 순회강연
- ③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Peace Festival

(3) 사업평가

1) 성과

- ① 평화친구만들기 2000 캠페인은 평화여성회가 시민단체로서 도덕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원확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회원 21명과 후원회원 4명이 새롭게 가입하고 회비납부율도 인상되는 성과를 남겼다.

항 목	1999년도	2000년도	비율	비 고
회원회비	4,964,913	8,412,210	71%	
후원회비	1,471,951	2,019,620	37%	
이사회비	4,554,271	4,229,620		
평생회원회비	800,000	500,000		

장기적 가능한 재정사업 개발을 위해 재정위원들이 기금을 모아 매실농축액 판매를 시도했다.

- ② 탈북여성모임(진달래 무궁화 모임)은 대화모임과 평화캠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는 친교의 장으로써 역할을 하였다.

2) 과제

① 평화친구만들기 2000 캠페인은 평화여성회의 재정과 회원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전체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새롭게 가입한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결핍으로 평화여성회에 대한 새 회원의 결속력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소모임 개발 등의 회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회원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축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재정위원들이 재정에 대한 부담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 활동을 그만두거나 참석율이 저조해지고 있다. 또한 새롭게 위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와 대중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중사업위원회로 나누는 방향을 고민할 필

요가 있다.

③탈북여성모임(전달대 부궁화 모임)은 남북한 여성들의 삶과 가치관을 상호 이해함으로써 남북한 여성들이 상호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먹거리 나눔과 친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참석자의 연령이 높고 활동적인 젊은 회원의 참석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업 교육과 취업이 시급한 문제다.

6. 한국어성평화연구원

(1) 연구원 구성

① 이사회

- 이사장 : 김윤옥
- 이 사 : 최분애, 윤영애, 이문우, 정현백, 최만자, 최영실

② 원 장 : 정현백

③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정현백
- 연구·편집위원 : 강남식, 김귀옥, 김현미, 박현선, 윤덕희, 이금순
- 자문위원 : 이우정, 김윤옥, 이현숙, 강정구, 고병현, 이삼열

(2) 사업 내용

1) 회의

가. 연구원 편집회의

① 1차

- 일시: 2000년 1월 5일(수) 오후 3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의실
- 참석: 정현백, 김현미, 김귀옥, 차인순, 김숙임, 김정수, 김화숙

- 내용: 『여성·평화』 총서 출간사 검토,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일정 검토, 진달래·무궁화 출판 방향과 필진 논의, 1999년 사업 평가, 편집위원 보강

㉓ 2차

- 일시: 2000년 2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여성평화의 집 지하 교육실
- 참석: 정현택, 김귀옥, 윤덕희, 강남식, 박현선, 김숙임, 김화숙
- 내용: 『여성·평화』 총서 검토, 통일외식조사 결과 발표회 일정 검토, 「진달래가 본 무궁화, 무궁화가 본 진달래(가제)」: 출판 방향, 내용, 방식, 편집위원 논의, 평화교육 강사뱅크 내용과 방식, 강사 논의, 회원 확보 논의

㉔ 3차

- 일시: 2000년 4월 12일(수) 오후 5시
- 장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의실
- 참석: 김귀옥, 박현선, 김정수, 안수경, 박금혜, 정현택, 김숙임, 김화숙
- 내용: 『진달래가 본 무궁화, 무궁화가 본 진달래(가제)』 인터뷰 및 편집 방향 및 내용 검토, 진달래·무궁화 선정 및 해당 주제 검토 및 기타

㉕ 4차

- 일시: 2000년 6월 5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여성평화의 집 지하 교육실
- 참석: 정현택, 김귀옥, 윤덕희, 박현선, 김현미, 김화숙
- 내용: 「진달래가 본 무궁화, 무궁화가 본 진달래(가제)」 출판 재검토

㉖ 5차

- 일시: 2000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 참석: 정현택, 김귀옥, 윤덕희, 안수경, 김현미, 박현선, 김화숙
- 내용: “진달래가 본 남한사회와 남한여성”을 『여성·평화』 2호의 특집으로 다루기로 하여 연구위원들이 작업하기로 함. 작업 내용과 일정 등을

김도.

⑥ 6차

- 일시: 7월 3일(월) 오후 4시
- 장소: 평화여성회 회의실, 어머니의 집
- 참석: 정현백, 김귀옥, 박현선, 김현미, 윤덕희
- 내용: 박현선의 통일부 프로젝트 검토. "전달태가 본 남한사회와 남한여성" 내용의 작업 분담과 집필 등 논의.

⑦ 7차

- 일시: 11월 11일(토) 오전 10시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참석: 정현백, 윤덕희, 김귀옥, 박현선, 김화숙
- 내용: 국제정치학회에서 발표할 "북한이탈 여성과 남한사회" 내용 검토, 통일 관련 홍보책자(여성연합과 공동) 전체 내용과 담당자 확정과 사업 일정 검토, 『여성과 평화』 2호 기획안 검토, 연구원 사업평가와 2001년 사업 계획 논의

나. 이사회 회의

- 일시: 2000년 3월 20일(월) 11시 30분
- 장소: 송원
- 참석: 김운옥, 정현백, 이문우, 최만자, 윤영애, 최영신
- 위임: 박분어
- 배석: 김숙임, 김화숙
- 내용: ○1999년 하반기 사업보고와 2000년 상반기 사업계획 검토 →사업 계획 통과
- "여성들의 통일의식 조사결과 발표회" 자료집을 평화여성회에서 내는 방안을 여성특위와 검토하기로 함.
- 권교조 여고사모임이나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을 통한 평화교육 검토, 평화교육의 방향, 정책에 대해 공유할 필요성 제기.
- 「여성과 평화」를 안정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함.

①기타안건: 최연실 선생님을 김윤옥 연구원 이사장이 이사회의 새 이사로 추천하자 모두 환영의 뜻 표함 / 정현백 선생님이 연구원 원장과 평화여성회 상임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연구원 원장을 겸은 채대로 교체하는 방안을 정현백 선생님이 제기함. 원장과 부원장 제도도 생각해볼 것을 권유. 이 문제들은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 연구원 이사회를 1년에 한번 열기로 결의함.

2) 여성들의 통일외식 조사결과 및 통일외식 함양 방안 연구결과 발표회

- 일시: 4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청단강의실
- 참석: 통일·평화단체, 여성단체, 평화여성회 회원 외 80여명
- 내용 ①사회: 김숙임(평화여성회 사무총장)

②주제발표:

여성은 평화와 통일의 주제: 1999년 여성의 통일외식조사 분석 발표 - 김귀옥(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여성단체의 통일외식과 통일사업 - 강남식(한국여성연구소 부소장)
남북여성교류 현황과 교류 참석자 태도 분석 -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평화여성회 상임대표)

통일대비 여성의 역량 강화 방안 - 윤덕희(명지대 북한학과 교수)

③보류: 이우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박우진(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협력조정관)

3) 『여성과 평화, 창간호 (당대출판사) 출판

①출판 시기: 9월

②내용

①특집 : 일상 속의 반평화

학교 내 획일성과 일상적 폭력/ 박승재

서비스 문화의 성차별성: 식당문화/ 김현미

군조직의 비(非)평화/ 신용식

대매춘과 남성/ 익명의 남성

연방의 없는 세상 왔으면: 연방의 혼란의 낭비와 비합리성, 그 폭력에 대하여/ 김영조

임산모의 눈으로 본 우리사회/ 김동순

안보와 폭력: 주한미군과 우리사회/ 정유진

이혼 후 새로 만드는 우리집/ 심광숙

“포기하면 그냥 죽겠다는 건가요?"; 기지춘 여성들의 이야기/ 김현선

화기에 의한 분위기를 성희롱이라고요?/ 유자나

㉠스크린 속의 남과 북

어느 탈북여성이 본 남한의 TV/ 조○○

북한 영화 <가죽농구 선수단>을 보고 나서/ 지순희

㉡과담: 역사적 발자취 속에서 모색하는 향후 방향

㉢시사와 논평: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 윤덕희

㉣연구논단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군사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인숙

한국 여성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정현백

현대 북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본 북한여성/ 김귀옥

㉤평화교육·평화운동

실천적 평화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고병헌

노근리의 해원을 넘어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강정구

역사를 바꾼다: 북아일랜드의 평화구축/ 마리 피츠더프(Mari Fitzduff)

4) “진달래가 본 무궁화, 무궁화가 본 진달래” 연구활동

① 기획 의도와 방법

② 기획 의도: 북한 이달 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통해 이들의 눈을 통해 남한사회와 남한여성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다. 또한 남한여성과 북한여성의 동일성과 이질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남북여성이 만나기 위해 필요한 지점들을 모색한다. 그리하여 남북공존의 틀을 고민하고 있으므로 통일상을 찾아보도록 한다. 이와 같은 지점들을 담는 데 있어 구체적인 생활상과 경험과 느낌에 중점을 둔다.

⑤방법: 진달래가 본 무궁화와 무궁화가 본 진달래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 진달래서는 진달래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필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위원이나 무궁화가 심층 인터뷰를 하여 일차 구술 작성을 하고 이차 원문 과정을 거친다. 후자의 경우, 무궁화 가운데 진달래와의 다양한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집필을 한다. 이때 무궁화가 평소 진달래와의 만남에서 느끼는 바나 차이점과 같은점 등을 중심으로 한다.

⑥지업 내용의 변화: 단행본 출간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출판 계획을 취소하였다. 대신 지업 결과를 국제정치학회 여성분과에서 발표하기로 하였다.

⑦ 국제정치학회 여성분과 발표

⑧주제: 북한이탈 여성과 남한사회

⑨일시: 12월 14일(목) 오후 3시 45분

⑩장소: 외교안보연구원

⑪내용: 탈북여성의 남한사회 재사회화: 사회·경제적 측면(지원을 중심으로)/ 박현선, 진달래가 본 남한사회와 남한여성/ 장인숙, 이옥금, 조연지, 토론/ 안수경, 송윤왕(북한 이탈 남성)

5) 평화·통일교육 강사뱅크

①취지: 여성단체를 비롯해 각계에서 평화와 통일에 논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필요가 있다.

②상황: 연구원을 중심으로 주로 여성연합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강의

6) 남북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 (통일부 프로젝트 사업/ 박현선 책임연구원 외)

①시기: 4-7월

②내용: 기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분석,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프로그램개발 및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등

7) 통일관련 홍보책자 발행(여성연합과 공동) 예정

①방법: 책자 내용은 연구원, 기타 부분은 여성연합이 담당

각 부분별 작업을 원고지 15매 내외(전체 90매)로 하여 12월말까지 완성
2001년 1월경에 완성하여 여성연합 소속단체 등에게 복사 배포

②편자 구성과 내용 작성자:

우리 삶 속의 분단의 피해/ 김화숙

통일 후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 박현선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소외와 그 극복방안,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정현덕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 김귀옥

남북공동선언의 의미/ 윤덕희

(3) 사업평가

1) 성과

전체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연구사업과 대중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통일·평화교육에 관한 강사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심포지움이나 워킹의 발표자 및 토론자로 명확히하여 평화여성회 병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무크지 『여성과 평화』 창간호를 냄으로써 이후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평화여성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2) 과제

출판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성과 평화』가 계획 보다 늦게 출판된 문제를 통해 앞으로는 안정적인 출판사 확보와 정기적인 출간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창간호에서 기획특집의 기획 의도가 부재 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앞으로의 연구 총서에서는 기획 의도 등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연구원 차원의 강사 활용이 다소 불완전한 점을 보강해야할 것이다.

2001년 사업계획안

-▶ 사업방향
-▶ 각 위원회 사업 계획
-▶ 월별 사업 계획

2000년도 사업평가

-▶ 사무처 보고
-▶ 사업방향 평가
-▶ 각 위원회 사업평가

2001년 사업방향

I 사업방향

1. 사업목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여성의 힘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남북 평화공존과 민족화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통일에 대한 사고방식도 상당히 다원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본회는 여성의 관점에서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화해와 공존의식 확산과 대중적인 평화의식 고취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적 참여와 여성세력의 주류화에 기여한다.

2. 주요사업

(1) 평화·통일 의제 개발과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 행동 전개

- 1) 평화·통일운동에서 요구되는 의제를 개발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 2) 평화·통일운동 정책결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입장을 제시한다.
- 3) 군속 활동
 - ① 국정감사 국방위원회에 대한 의정감시 활동

②기타 제반 군속 의제 개발 및 연대 활동

4) 북한여성과 어린이 돕기: 먹이, 임산모용 영양제 등을 북한에 보내기

5) 국내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성

①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평화통일포럼의 정착

②통일과 평화 문제에 관련해 여성단체 및 여성지도자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③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활동

6) 평화·통일 관련 국제평화네트워크 구축

(2) 평화·통일운동의 대중화 기반 조성

1) 평화·통일교육을 비롯한 대중프로그램: 평화의식 확산을 위한 대중 프로그램 개발과 일상의 삶에 연결시키는 평화운동을 전개

①여성평화아카데미

②여성통일아카데미

③대중프로그램으로서의 “갈등해결과 관용 훈련” 모의

④반평화 지역 평화기행

⑤8.15 여성통일한마당

⑥평화·통일교육 강사명표

2) 사이버공간을 통한 여성평화통일운동의 회원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①홈페이지 활성화

②사이버 공간에서의 평화통일운동

3)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 확산

①북한 여성에 관한 연구

②북한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치 등에 관한 교육

(3) 조직 강화 사업

1) 회원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 ① 회원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회원 소모임 개발
- ② 소식지를 통해 회원의 참여를 높이고 회원 망을 강화
- ③ 사이버를 통한 회원의 의사소통구조 활성화
- ④ 회원수련회 전개
- ⑤ 회원 데이터 베이스 구축

2) 재정 사업 강화

- ① 재정위원, 후원회원, 이사 확보와 강화
- ②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카페와 기타 수익사업

3) 조직정비

- ① 사무처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사업 진행
- ② 위원회 강화
- ③ 연대활동의 체계적 배치

II 2001년 각 위원회 사업계획

1. 정책기획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김정수
- 위 원: 공동대표, 각 위원회 위원, 전문가 2-3인 포함

(2) 사업목표

- ①민족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개발 및 정책제시
- ②여성평화운동의 수행을 위한 장단기적인 정책개발
- ③정부의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정책제시 활동
- ④평화·통일운동에서 요구되는 의제를 개발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사업을 전개

(3) 사업내용

- ①주요사업내용을 평가 조정한다
- ②정책개발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실시한다.

2. 평화통일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홍승희
- 위 원: 안수경, 윤수경, 고은실
- 위원(서명숙, 임현주 등)을 보강해서 운영을 해보고 사안에 따라 정책기

취위원회와 결합

(2) 사업목표

- ①남북화해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 ②남북한의 통합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전개
- ③평화공존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전개

(3) 사업내용

1) 여성평화통일포럼

* 2000년도에 진행되어 온 여성평화통일포럼 지속적으로 개최 *

- ①일시: 2001년 4월, 7월, 10월
- ②내용: 남북관계 현안을 중심내용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 ③대상: 통일평화관련 전문가, 여성단체/ 통일단체 활동가, 평화여성회 위원 등 어젠주도층

2) 여성통일아카데미

- ①일시: 2001년 5월, 9월
- ②내용: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주체로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북한여성과 사회, 북한여성과 조직, 북한여성과 정치, 북한여성과 가정, 북한여성과 경제 등을 주제로 실시한다 또한 지역순회 강연을 진행한다.
- ③대상: 평화여성회 회원, 여성단체 회원, 대학생, 일반여성

3) 여성평화통일여울마당

- ①일시: 2001년 8월 15일 전후
- ②내용: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문화행사로써 여성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일반여성과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행사를 추진한다.
- ③장소: 대학로 등

4) 북한여성과 어린이 돕기 캠페인

①일시: 2001년 1월부터 3월

②대상: 평화여성회 회원 및 여성일반

③내용: 미역, 옷감, 영양비스킷 등 대북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 캠페인

5) 평화군축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내 연대활동

- 평화군축을 위한 의정감시단 활동
- 평화·통일과 관련한 국내 연대활동

(4) 사업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성평화통일포럼			행사			행사			행사			평가
여성통일아카데미				행사				행사				
여성평화통일어울이당							행사					
북한여성,이동통신캠페인	평제인											
평화군축 관련 연대	-----연대활동-----											

3. 평화교육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김숙임
- 위 원: 이은선, 박애경, 최영숙, 김정수, 임희숙, 박분이
- 자 문: 강순원, 문화영, 박유희

(2) 사업목표

- ①평화의식과 통일외의식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대중교육 프로그램 전개한다.
- ②평화통일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③대중적이고 다양한 평화교육 방법 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일상의 삶 속에 뿌리내리는 평화운동으로서의 평화교육을 모색한다.

(3) 사업내용

1) 여성평화아카데미 2001년 강좌(상, 하반기 2회)

- ①시기: 2001년 4월-7월, 10월
- ②대상: 여성, 평화, 통일 시민단체활동가, 일반시민 등 총 40여명(기당20명)
- ③내용 ㉠평화 관련 이슈와 논의에 대해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재구성, 일상의 반평화 문제를 명명화하는 작업과 관련된 논의, 다양한 영역의 평화 문제에 대한 시각의 틀 구성
㉡강의뿐만 아니라 영화, 참여자 창조력 키우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전개 평화기행을 프로그램의 일부로 하여 강좌 참여자들이 참여도록 함
- ④후원: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2) 평화기행(상, 하반기 2회)

- ①시기: 5월, 9월
- ②대상: 본회 회원 및 일반인 총 80여명(각 40여명)
- ③내용 ㉠기행지-대항리, 판문점 등 반평화 지역
㉡사전교육, 기행지에서의 이벤트 등을 결합시킴

3) 평화교육 심포지움

- ①시기: 2001년 10월
- ②대상: 평화, 평화, 통일, 시민단체 관련자, 학계, 학생, 일반인 등

4) 갈등 해결과 관용 훈련 프로그램 개발

①방법: 프로그램의 현실가능성과 구체적인 대뉴얼에 대한 내부 회의를 진행 > 회상 결과를 기반으로 하반기(11월 초 즈음)에 소규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 > 이를 통해 갈등 해결과 관용 훈련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타진

②앞으로 평화교육의 주요 지점이 될 수 있는 갈등 해결과 관용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대뉴얼 개발에 힘써 2002년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다양한 평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활동

①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방법 전개, 대상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 모색 *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소모임" 구성을 모색 * : 소모임 결과물을 여타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연계시키고 이후 하나의 자체적인 평화교육대중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②평화교육 관련 정보수집과 연구

(4) 사업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성평화 아카데미	준비(프로그램, 강사 등 협의)		4월 말~7월 초: 사업실행				준비		하반기 교육		
평화기행		준비	상반기 기행				준비	후반기 기행			
심포지움							준비	실행			평가
갈등해결과 관용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내부 회상							준비		소규모 실행	
영화소모임	준비	소모임 진행									

4. 재정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서미숙
- 위 원: 이낙호, 윤명선, 최경원, 박형욱, 김경화, 최현숙, 전은주, 김옥경

(2) 사업목표

- ①사업재정을 위한 기금조성사업을 개발 한다.
- ②2001년 운영비를 재정사업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③재정위원을 보강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한다.

(3) 사업내용

1) 평화기금 마련을 위한 평화겨레

- ①시기: 2001년 3월초
- ②대상: 회원, 후원회원, 평화·통일·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일반시민 등
- ③내용: 주경한 먹거리(하루호프)와 기증품 판매에 중점, 후원자와 기업협찬 확보, 목표액을 정해 책임감 있게 시행

2) 2001년 운영비 확보를 위한 재정사업

- ①시기: 2001년 6월 초 - 11월 말
- ②대상: 회원, 후원회원, 평화·통일·시민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일반 시민 등
- ③내용: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 사업

3) 2001년 운영비 확보를 위한 회원과 후원자 확보 (회비율 인상)

- ①시기: 연중
- ②대상: 회원, 후원회원 보강과 기존회원
- ③내용: 회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시도를 논의하여 분기별로 혹은 상·하반기에 진행한다. (예. 분기별 회비현황 분석, 격월로 소식지와 회비에 관한

회원급 발송 등)

4) 평화와 재정확보 프로그램

①시기 : 2001년 위원회 회의

②대상 : 재정위원, 회원 등

③내용 : 학습(평화, 여성, 다 단계 재정사업 등)을 통한 재정사업 고민과 후원자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2년 사업에 반영한다.

(4) 사업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화마에	진행										
수익사업					준비		진행				
소식지					적립		발행				

평가

5. 기타 홍보사업

(1) 소식지 발행

- 편집위원회: 홍순희(위원장), 박수선, 이김현숙, 김은희, 김화숙
- 내용: 정기적 발행을 목표로 한다. (격월 발행)

(2) 홈페이지 관리

- ①홈페이지 보강과 재구성
- ②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운영

(3) 브로셔 제작 검토

6. 국제협력위원회

(1)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정경란
- 위 원: 권혜순, 김대연, 노길원, 홍승희, 박수선, 이아람, 황유경

(2) 사업목표

- 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활동
- ②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관계형성
- ③ 한국여성평화운동의 국제적 역동화와 홍보활동
- ④ 국제활동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조직과 역량강화

(3) 사업내용

- 1) 여성평화형성 캠페인-마음 평화회로부터 외교협상의 장까지 International Alert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캠페인으로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평화상을 제정함으로써 평화구축에서 여성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2001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25만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 코피아난에게 보낼 예정이다. 한국 연락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2) AFSC와 갈등해결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AFSC,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으로 한국사회 관용과 공존의 문화를 확대하고 지역, 계층, 성, 남북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8개월 훈련 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실시해왔다. 그 연장선에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실습하고 갈등 중재현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①훈련자: 김정수, 정경란, 박수선(총 15명 중 평화여성회 참석자)

②내용 ③수련회(2001년 2월 4일-8일, 광주)

-훈련프로그램, 평가, 커리큘럼 개발, 한국상황에 맞는 커리큘럼

개발

①현장 방문 프로그램- 2001년 5월 또는 6월

3) 국제여성평화운동가 모임

- ①일시: 3월 25일-4월 1일
- ②장소: 네덜란드
- ③회의: "International Consultation for Women and Peacemakers"
- ④주최: International Fellowship on Reconciliation

4) 5.24 군축과 평화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 행사 개최

- ①일시: 2001년 5월 24일
- ②내용: '평화의 문화' 확산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및 행사
- ③주최: 여성단체 및 평화단체 공동 주최

5)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네트워크 모임

- ①한국, 필리핀, 미국, 오키나와, 일본의 여성활동가로 구성된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 네트워크는 워싱턴, 오키나와 국제회의를 통해 여성의 관점에서 안보에 대한 재평의를 규정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연대활동을 해왔다.
- ②한국에서는 1999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새움터, 두레방,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평화인권연대와 관심있는 개인들이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 ③2002년 제3차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7월말-8월초 준비회의가 한국에서 있다. 네트워크 관련 국가에서 각각2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6) 영문뉴스레터 발행

1999년 남북정상회담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과 평화여성회의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국제평화단체, 여성단체 등과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영문 뉴스레터를 발행한다.

7) 대안징병제도에 관한 국제워크샵

2000년 대안에서 대안적인 징병제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대안적인 징병제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와 한국 평화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안 활동가, 유럽 활동가를 초청하여 '대안적인 징병제도'에 관한 국제워크샵을 3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4) 사업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안징병제도국제회의	준비	진행									
여성평화청성 캠페인	서명수집 및 전달										
활동해결 프로그램	수련회			원장 발문							
국제여성대회준비연대			유석								평가
5.24 행사			준비	행사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네트워크		모임		모임		2002 국제 회의 준비회의					
일본 뉴스레터									발행		

7.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 연구원 구성

1) 이사회

(1)이사장: 김윤옥

오이 사: 박본이, 윤영애, 이문우, 이현숙, 정현백, 최민자, 최영실

2) 원 장: 정현백

3) 연구·편집위원회

①위원장: 정현백

②연구·편집위원: 강남식, 김귀옥, 김현미, 박현선, 윤덕희, 이금순

③자문위원: 이우정, 김운옥, 이현숙, 강정규, 고병현, 이삼열

(2) 2001년 연구원 사업

1) 통일관련 소재자 발행 (여성연합 공동)

①내용은 한국여성평화연구원에서, 기타 부분은 여성연합이 담당

②발행: 2월 경

③내용: 우리 삶 속의 분단의 피해(김화숙)

통일 후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할까(박현선)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소외와 그 극복방안(정현백)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정현백)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김귀옥)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윤덕희)

2) 『여성과 평화』 2호

①전체 방향: 평화통일을 어떻게 준비해나갈 것인가

②발행 시기: 8월 초

③내용(필자 미정)

④특집: 일상에서의 통일 이야기 "내가 만들 통일 세상"

(분회 회원/초등,중고,대학생/군인/공무원/농부/노동자/전업주부 등)

⑤논단: 여성의 통일외교와 평화통일교육 방안(김정수)

평화와 통일의 관계(박순성)

남북여성들의 만남: 차이와 통질성(박현선/김귀옥)

⑥대담: 여성평화통일운동의 근원, 이우정을 말한다 (정현백 진행)

⑦시사와 초점

⑧평화·통일현장 답사기/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3) “독일통일과 여성인권” 프로젝트

① 연구

- 시기: 7~8월 경
- 내용: 통일 전 동독 여성의 삶의 양태와 통일 후 동독 여성의 일과 삶, 통일 전 동독의 여성조직과 여성운동 통일 후 동서독 여성운동, 여성정책의 변화 등

② 심포지움

- 시기: 10월 경
- 내용: 통일과 여성인권(독일과 한국 비교를 중심으로)
 - ① 혁명주체로서의 여성과 탈권력화: 통일과정에 여성의 권여, 정치권력에서의 배제 등
 - ② 독일 통일과 여성의 지위 변화
 - ③ 독일통일과 여성운동

4) “통일과 여성” 주제로 한 프로젝트 모색

- 통일과 여성 관련 책자 발행/공청회/여성연합 산하 등의 교육

(3) 사업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괄 관련 소재자	구성 및 대포										
여성과 평화 2호	권과 심의 및 권고 실탁	원고 발송, 수정	전체 검토 및 출판 작업	발행	평가					3호 기획	평가
‘독일통일과 여성인권’ 프로젝트	준비					연구	준비	심포 지움			
프로그래밍	--- 미 정 ---										

2001년 월별 사업계획

사업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화 통일	여성평화통일포럼			행사			행사			행사	
	여성통일아카데미				행사				행사		
	여성평화통일어울마당						준비	행사			
	북반여성·아동 돕기 경제인	경제인									
정화군축 관련 연대	연대활동										
영화 교육	여성평화아카데미	준비	심의		교육			준비	교육		
	평화기행		준비	기행			준비	기행			
	심포지움							준비	행사		
	강동해결과 관용훈련	준비		프로그램개발	내부직강			준비		행사	
	영화소모임	준비					영화 소모임 진행				
지정	평화야재	진행	행사								
	수익사업					준비		진행			
	소식지		발행		발행		발행		발행		발행
국제 협력	여성평화통일성 결핵인	서명수집연단									
	강동해결 프로그램	수원 회						현장 방문			
	국제여성평화운동연대			분석							
	5.24 행사			준비	행사						
	군사주의반대하는 한국여성티로회		모임		모임		2002국제회의준비회의				
	대안적인 생명제도 국제학살	준비	진행								
	영문 뉴스레터					준비				발행	
연구원	통일관련 소책자	진행	행사								
	여성과 평화 2호		평가상의 인고철학		원고인승 수정	전체검토 출판작업		발행	평가		3호 기획
	"특일통일과 여성인권" 프로젝트			준비		연구		준비		심포 지움	
						이	경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이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본회의 명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여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아시아지역의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통일평화사업 평화세계 구축과 민족통일을 위한 재민활동
2. 통일·평화교육사업 통일·평화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통일·평화연구사업 통일과 평화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4.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연대활동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국내의 개인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본회의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을 준수한다.
2.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3인 내외
2. 이사 5인 이상 11인 이하
3. 감사 2인
4. 사무총장 1인, 사무총장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임원은 공인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공인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임원선호장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2번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공선임원 임원은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선임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의장이 된다. 이 중 1인이 출원으로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며 본 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동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5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1.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총회 구성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할 때
4.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2. 단재(법인)의 해산 및 정관 채택과 개정
3.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위탁, 기증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주요한 사항 의결

제19조(총회의 의결) ①총회는 제지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공동대표가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5(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의결 또는 회원추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13(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공동대표와 이사들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223(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일년에 두 번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⑥감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3(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 할 인건의 작성
9. 회원의 제명
10.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11. 기타 대표가 부의 하는 사항

제6장 재정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이며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5조(재산의 관리)

- ① 기본재산을 면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재정수입)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감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2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면 2회 이상하도록 한다.

제30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31조(사무처) 본회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제32조(구성 등) ①사무처에는 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실무자를 두되,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여 이 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증명할 수 있다.
 ②실무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보칙

- 제33조(정관개정 및 개정) ①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②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③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법인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본회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한다.
 제35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 본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7조(가담)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단행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동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통일부 장관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운영규정

제1조(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성 :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시·지 회계, 각 위원장, 사무총장, 일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대표가 회의를 주재한다. 한국어성평화연구원 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 임기 : 시·지 회계, 일반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3. 직무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요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4. 소집 :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위원회) 본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는 정책기획위원회, 평화통일사업 위원회, 평화교육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재정조직관리위원회로 구성된다.

1. 구성 : 각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약간의 위원을 둔다.
2. 직무 : 각 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을 관장하고 집행하며, 각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한다.
3. 위원장 선출 및 임기 : 각 위원장은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4. 소집 : 각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갖는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본회는 본회 활동에 관한 지도,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본회는 본회의 활동에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인준한다.

1999. 3. 4 개정

2000. 1. 25 1차 개정

글모음

16대 총선 정책과제: 평화통일 분야	107
6월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관한 논평	111
남북정상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여성들의 건의문	112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들의 실천과제	117
여성인권 유린하고 불평등을 강요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하라!	121
한미우문군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여성계 입장	123
SOFA 여성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위한 여성계 요구안	127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30
the reform of SOFA pertaining to women's rights issues	133
SOFA 여성인권보호 조항 신설 청원취지	135
SOFA 여성인권보호 조항 신설 청원내용	137
Korean Peace NGOs	139
The Millennium Appeal of NGOs for Peace, Security and Disarmament in Northeast Asia	141
밀레니엄 포럼에서 동북아 평화, 안보, 군축에 대한 NGO성명서	143
"국제 여성 Summit - 안전보장 체정의를 향하여" 성명서	145
정대협 416차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148
정대협 434차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150
"남북여성의 합의를 환영한다." 성명서	152
민중 Vision 중 평화(Peace)	153
ASSEM 2000 민간포럼 여성분과 성명서	155
빈곤과 폭력추방을 위한 세계여성대회 한국대회 결의문	157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서	159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사퇴 촉구 건의문	161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성명서	162

16대 총선 정책과제: 평화통일 분야

1. 분단, 군대범죄로 인한 여성인권유린 방지

(7)현황

1) 끊임없는 행정협정의 결과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10만 건 이상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으며, 97년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1-2%만이 한국법정에서 처벌받았다. 1967-87까지 20년간 발생한 미군범죄는 총 39,452건으로 하루 평균 5건, 연평균 2,200건이다(범죄에 가담한 기군은 45,185명). 20년동안 한국정부의 재판건 행사율은 0.7%.(자료출처: 주한미군범죄백서,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펴냄, 1997, 13쪽)

이 기간 동안 신고된 한국여성강간 사건을 84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과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되지 않는 1967년 이전의 사건 까지 합한다면 미군에 의해 강간당한 한국여성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80년 이후 97년 현재까지 주한미군을 상대로 하는 매춘여성 가운데 자인사가 아닌 다 른위인(다살, 섹팅사)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7명으로 밝혀졌으며, 92년부터 97년까지 미군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7명이다.

2) 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쟁범죄이며 그 책임자는 색출 및 처벌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96년 4월 제 52차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UN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로서 일본정부는 법적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범죄와 법적 책임을 부인하며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조성하여 민간모금차원에서 이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현재 군대위안부들에게 일인당 3,15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지원금 650만원을 지원했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북경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1999)

3)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92년부터 97년 사이 지뢰피해자는 총 78명이고 그 중 민간인 피해자는 29명이라고 한다.(국방부 국정감사 자료, 1997.10.2) 이전 자료는 보존기간이 5년이기에 국방부에서 폐기되었다. 여성 역시 대인지뢰 피해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약 1000여명 이상의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

(2) 정책과제

1) 불평등한 한미 군사관계 개정과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를 방지한다.

① 주한미군의 무기한 주둔을 보장하는 한미방위조약의 불평등한 요소를 개정하고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축소한다.

②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해 미군에 의한 여성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국가주권의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2)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일본정부가 범피인정과 법적 배상을 실시하도록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생계를 지원하고 일본과 국제사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3) 정부는 국제대인지뢰협약을 비준하고 지뢰 피해자를 지원한다.

대인지뢰는 여성과 아동을 포함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다. 정부는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을 서명, 비준하고 대인지뢰 피해자를 지원하고 대인지뢰 제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 평화문화 확산과 여성지도력 양성과 지원

(1) 현황

1) 2000년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평화 문화의 해'이다.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전세계의 노력에 발맞추어 한반도에 평화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한다. 경쟁과 대립, 갈등과 분열이 아닌 관용과 화해의 평화적 가치관을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평화교육은 통일전후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999년 8월부터 통일교육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통일부는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에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균형교육, 사회적 행동을 위한 교육, 적극적 평화교육 및 테크놀로지 에 바탕을 둔 교육, 그리고 생애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그 원칙을 밝히고 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방위비 수준은 전체 예산지출 규모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고 있다. 2000년 정부가 책정한 국방비는 14조 4,390억원이다. 이는 1999년 국방비 13조 7,490억원보다 6,900억원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신무기의 과다한 구매는 방위비 증액과 군대내 비리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형수송기 CN-235 후속 구매사업, K1 전차 포수조준경 남몰 관련 의혹점, 러시아 중형 잠수함 도입 등에서 수많은 의혹점이 제기되고 있다.

3) 국방관련 정보는 1,2,3급으로 분류되어 민간인이 접근하기 곤란하다. 민간인은 한반도의 객관적인 안보환경을 알 권리가 있다. 국방부는 1998년 12월 3일 4개 부분에 걸쳐 58개 개혁과제를 담은 21세기를 대비하는 '국방개혁(1998-2002)'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58개 국방개혁과제가 군사기밀로 취급되면서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은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과제의 추진상황을 알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민간단체의 국방부 국정감사 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민간인의 국방관련 정보접근권은 거의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1997년 국방부 보고자료에 따르면 '97년 군 사망사건 수가 202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안전사고 사망자수가 129명이고, 군기사고 사망자수는 73명이다. 전체 사망자 202명 중 34%에 달하는 69명이 자살로 발표되어 있다. 또한 현재 100여건에 달하는 의문사해 대해 단 한 건도 진상규명이 된 사건이 없다. 군의문사는 죽음 자체만으로도 관련된 가족의 평화를 깨지만 의문사해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가족의 고통을 배가시킨다.

(2) 정책과제

1) 평화교육을 위한 여성지도력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학교와 언론에서 평화교육과 평화문화를 다루기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통일평화교육 실시과정에서 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도록 보장함과 아울러 반드시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③ 평화에 대한 연구에 여성이 참여 맞장시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④ 비폭력, 관용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에 초점을 두는 평화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 남녀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⑤ 여성단체들이 평화가치관 형성과 평화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여성 평화운동 지도력을 배출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통일, 국방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에 30% 이상 여성참여를 보장한다.

2)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방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21세기 남녀가 광범한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남북한은 자주국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비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군사력 차원뿐 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차원을 포함한 인간안보를 지향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통일시대를 만들고 평화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병역비리, 군대내 비리, 무기도입 비리 등 군대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증가를 위해서 군예산낭비 감시를 위한 평화운동단체들의 요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민간의 제도적 참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정부는 여성비하와 여성차별을 강화하는 군사주의 가치체제와 원시, 군의 폭력 문화를 청산하고 군대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6월 남북정상회담 발표에 관한 논평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공존 확산과 정착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 2000년 유엔이 정한 '세계평화문화의 해'에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이산과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7천만 겨레의 고통을 덜어주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민족통일과 평화체제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먼저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반세기 이어온 분단을 넘어 상호신뢰와 공존을 위한 평화체제 형성이 시급하다. 남북의 상호 신뢰형성과 균속을 통해 과도한 군사비를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통해 남북여성교류를 위해 여쭙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여성들의 교류를 더욱 촉진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서 여성들이 주역으로서 참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민족의 일대 중대사이기에, 국민의 열망과 염원을 담아 최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총선 사흘 전에 정부당국이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정부는 보다 신중한 자세로 민족사의 대과제를 풀어나가기를 촉구한다.

2000. 4. 10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정상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여성들의 건의문

제1회 여성평화통일포럼 “남북정상회담-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채택된 건의문으로 평화대, 통일부, 여성특별위원회 전달했다.

6월12-14일에 개최될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여성들은 지금 회담에 부푼어 있습니다. 이런 남북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남북문제를 민족 내부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족 자주의 길을 열었고, 오래 지속되어온 '무력을 통한 갈등 해결'의 구도를 '협상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모색'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은 남북간의 평화공존이 각자의 삶 권리와 얼마나 깊이 연계되어 있는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평화체제가 수립될 경우, 이산가족,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겪고 있는 이별의 고통도 사라지고 과거에 지출되던 많은 군사비를 여성 복지비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군사주의 문화의 소멸과 함께 여성을 향한 많은 사회적, 개인의 폭력도 근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우리 여성들은 남북정상회담을 크게 환영하고, 그에 성공적인 전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이 민족사적 대 사건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을 통해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통일과정 그리고 사회 제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협상과정이 통일 후 여성의 삶을 얼마나 열악하게 만들었는가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함께 뜻을 모아, 남북 정상과 국민 여러분께 여성의 입장과 요구를 알리고자 합니다.

1. 남북정상회담과 통일과정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첫째, 우리 여성들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의 정신에 입각하여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과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든 남북협상이 이산가족문제 등 문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덜고 기아사태와 같은 재난에 처한 이들의 생존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인도주의 원칙에 준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남북대화에서 인도주의적 지인을 가로막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양하고, '비장가성, 비공시성의 원칙'이 견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 남북한 민중은 경제위기, 생태위기, 자연재해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존속과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군사중심의 안보개념에서 벗어나 사회, 경제, 환경안보를 포괄하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공유하고, 이 모든 위협에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결단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셋째, 남북한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을 공존 공영의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대방을 '적'이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냉전논리에 서 벗어나, 서로를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 보는 새 시각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간에 적대감과 대결을 부추기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한대의 경제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냉혹한 국제현실 속에서,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언제라도 양측 모두를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남북한 국민의 복리를 확대하기 위한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이 환경친화적, 여성친화적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협력 과정이 남한의 특정 재벌이나 특정 계층 그리고 남성만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북한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도 안됩니다.

다섯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즈음하여 남북한 인민의 염조를

부탁합니다. 색다른 시비를 만들어 상대방을 자극하고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민족 화해를 지향하는 태도를 견지하길 바랍니다. 또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 대한 보도를 늘리고,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된 보도를 기대합니다.

2.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

그간 여성들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남북여성교류, 정신대문제 대책 활동, 북한정보공개, 국제연대활동 그리고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운동을 통해 한 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가는 일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에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여성을 배려하는 조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의 정책과정에 그리고 향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는 남북간 평화체제의 실현이나 통일의 달성이 바로 양성 평등 사회의 완성과 밀접상통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구들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통일과정이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정부간의 협상과 타협으로 끝날 것을 우려합니다. 이에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속과정에서도 민간단체의 민주적인 참여 그리고 여성의 참여확대를 요구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대표단과 실무단 구성 그리고 향후의 민간단체 참여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최소한 30%까지 높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 참여자의 선발과정에서 정부 당국자는 개인적인 연줄 망을 통하기보다는, 여성 전체의 이익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으로 여성대표단을 추천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여성관련 의제를 남북 정상회담이나 후속협상에서 반드시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성의계 중에서도 지난 몇 년간의 남북교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과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합니다. 평화와 관용을 사랑하는 여성들, 그리고 가정

과 사회에서 교육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아말로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사회문화통합의 주체로서 훌륭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더욱 활성화될 남북 경제교류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여성경제인들에 대한 우대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로 정부나 민간단체들은 인도주의 원칙에 준하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아로 인한 심각한 모성과괴와 열악한 어린이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데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건강한 아동과 건강한 모성이아말로 우리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 모두가 새로운 형태의 평화교육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공교육과정에서 '대응'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과 '다른 이'를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존의 지혜', 그리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처리하는 '갈등해소방식'을 포괄하는 **평화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공교육과정에서, 그리고 다양한 민간사회단체들은 성인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평화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성인직접 관점을 함께 통합하기를 요청합니다. 국민들의 심성이나 일상생활 속에 평화의식이 내면화될 때 비로소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공존과 통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0여 년만에 맞이하는 남북정상회담이 그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남북간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평화와 화해가 정착할 수 있는 큰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남북정상과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00년 5월 29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남북정상회담: 여성, 무엇을 할 것인가.」 여성평화통일포럼(5월 16일) 참가자
연봉 및

단체: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한YWCA연합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전주고공동체, 새움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함께하는두부모임, 흥사단

여성계 인사:

김영림(한국여성개발원), 김진우(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김태현(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 교수), 공미혜(신라대 여성학 교수), 김민순(화가), 남인숙(효성카톨릭대 여성학 교수), 민경희(충북대 사회학 교수), 신경주(한양대 소비자·가족·주거학 교수), 심영희(한양대 사회학 교수), 오숙희(여성학자, 김포여성민우회 대표), 오진경(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교수), 윤지나(동국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이경순(전남대 영문학 교수), 이상화(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이숙진(인천발전연구원 연구원), 이정자(시민운동지원기금 상임이사), 장필화(이화여대 여성학 교수), 장화진(충남대 사회학 교수), 정안숙(좋은빛들 사무국장), 조부석(숙명여대 영문학 교수), 조옥라(서강대 사회학 교수), 조은(동국대 사회학 교수), 조우현(계명대 여성학 교수), 조혜경(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라금(이화여대 여성학 교수)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여성들의 실천과제

2000년 8월 14일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절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 기조발제문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이뤄진 후 첫 번째 8.15를 맞고 있다. 다시 한번 7천만 겨레에게 통일과 평화의 희망을 심어준 6.15 남북공동선언을 환영하며 이후 이어진 남북장관급 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의 실현, 9월로 예정된 장기수 송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 등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힌다. 우리 여성들은 앞으로도 남북한 정부가 6.15 공동선언을 지체없이 구체적으로 실천해갈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남북화해 조치와 통일과정에 여성과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

우리 여성들은 남북 분단과 휴전체제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여성들이 통일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과 민족통합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 여성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역할을 떠맡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8.15에 열리는 '2000 통일맞이 대축전'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여성들의 실천과제를 밝혀져 된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드리고 여성들의 다양한 실천과제들이 여성행역은 물론이고 정부와 관련부처에 전달되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길 기대하며 여성들의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여성들의 실천과제

6.15 공동선언

**제1항 : 남북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천과제 :

1) 통일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갈 것이라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국제적으로 적극 홍보한다. 특히 강대국이 남북한 통일의 자주적 해결을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국제여론을 형성시켜나간다. 또한 남북 사이에 전쟁을 막고 평화를

정확시키기 위하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과 요구를 알리는 호소문을 UN 등 국제기구나 국제NGO, 평화단체들에게 보내고 자주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제의성평화 연대 틀을 형성해 나간다.

2) 자주적 통일과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국제 조약이나 협정 그리고 국내법과 여러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나간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비롯한 불평등한 국제 조약 및 협정의 개정, 국가보안법의 재제, 미향의 국제특격장 죄책 운동 등을 벌여 나간다.

3) 자주적 통일 환경과 기반조성의 하나로 남북한 국방비 삭감운동을 벌여나간다. 상호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남북한의 막대한 군사비를 경제건설비용과 사회복지비용으로 전환하여 건강한 통일사회를 준비하도록 범 여성 운동을 벌여 나간다. 1996년 현재, 남한은 152억 7천만 달러, 북한은 53억 3천만 달러를 군사비로 사용했으며(The Military Balance 1996) 남한 정부는 1999년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부담금)으로 1조1236억원을 사용했다. 이러한 막대한 군사비를 남북 상호 군축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와 생산, 그리고 통일을 위한 자원으로 전환시키나기도록 촉구한다.

제 2 항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실천과제 :

- 1)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통일방안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간다. 특히 이런 통일방안이 앞으로 민족의 복리와 여성의 권익향상에 어떻게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는 등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간다.
- 2) 남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벌여 나간다. 현 통일방안의 논의와 함께 그것의 성실 배경과 남북한 사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확대하는 교육운동을 펼쳐나간다.

제3 항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미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실천과제 :

- 1)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상봉을 제도화할 것을 남북 정부에게 요구해 나간다.
- 2) 이산가족 상봉으로 발생할 가족문제, 재산권 문제 등 제반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과 특히 여성의 권익이 보호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3)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또한 상봉이산가족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와 민간단체들에게 촉구해 나간다.
- 4) 비전향장기수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단 피해자들의 남북 자유왕래를 보장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간다.
- 5) 이산가족 상봉이후 과생활 문제를 여성인권 보호적 측면에서 대응할 것을 여성단체들에게 촉구한다.

제4항 :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실천과제 :

- 1) 남과 북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남북간의 군축운동을 확대해 나간다.
- 2) 남북간 여성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3년도에 중단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남북-일본 토론회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여성의 공동과제인 '종교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
- 3) 남북한 여성들이 공동으로 협력하고 풀어가야 할 여성과제와 프로그램 등을 각 영역별로 모색하고 개발해 나간다.
- 4) 통일부와 남북회담 사무국 내에 여성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고 통일관련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30% 이상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에 선정한 부문별 부속합의서 이행 및 정부 당국간 교류를 위한 분야별 공동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요구하고 '사회문화교류위원회' 내에 '여성분과' 설치를 요구한다.
- 5) 남북여성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정부에 촉구해 나간다.

6) 남북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 임신모와 어린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한다.—북한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3세 이전의 어린이, 임신과 수유중의 여성, 노년층, 환자 등이 북한 지원 유연 기구와 NGO들이 지정하는 집중지원대상이다. 이 인구계층은 영양결핍에 극히 취약하고 시의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면 영양실조의 장기적 악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날 집단이다.

7) 여성들의 대북지원 사업에 정부가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8)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제반 정부문서, 교육자료, 지침을 바꾸어 '남북한 특수관계'를 인정할 상태에서 남북 회회 용어를 사용하는 운동을 벌여 나간다. 또한 남북교류에 필요한 항목을 갖추게 하는 교육활동을 벌여 나간다.

제 5항 : 남과 북은 이성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실천과제 :

1) 6.15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남북한 정부가 성실하게 실천하도록 감시하는 여성활동을 전개한다. 정부나 정치인들이 6.15 공동선언을 정권안보나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용하지 못하도록, 동시에 이를 민족적 입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견제, 감시한다.

2) 언론이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보도대도를 견지하는 지를 감시한다.

3) 각 계 여성들과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국회비준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및 기본합의서에 있는 공동위원회의 정례회를 촉구하며 모든 형태의 당국간 회담에 여성들의 참여를 30% 이상 보장하고 여성관련의제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여성인권 유린하고 불명등을 강요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하라!

6월 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해 온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과다한 방위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남한 방위를 목적으로 주둔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 문제와 남한 내에서 저질러 온 인권유린행위, 환경과괴행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무뎠고 있다.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사과 취소에서 보여준 거만한 태도, 살명당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등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받아들일 것이 사실이나, 이제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더 이상 관용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주한미군이 저질러 온 수많은 인권유린과 주한미군을 위한 특수 산업 지역인 기지촌을 통해 피폐의 성문화가 확산되고 성매매가 일상화되어 온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임신한 여고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 자궁에 콜라병이 박힌 채 무참히 살해된 출근이 사건, 대구 초등학교 성추행사건, 미군에 의해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지만 범인조차 밝혀지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기지촌 여성들... 그러나 이러한 뻔뻔스러운 범죄들은 미군피의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권합권이 독립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거나 검거하더라도 한국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이해될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으로 폭력되는 미군들은 주둔국의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 저공 비행을 하고 여성들을 희롱하여 자존심을 무시하라는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에 비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부대는 주변 환경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와 그들의 반인륜적 범죄, 환경과괴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재개되는 SOFA개정 협상에 여성들의 요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관련 규정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채택, 미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 직업재활을 위한 구체적 노력, 주한미군의 성매매 금지 및 예방교육, 주한미군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1. 여성인권 유린하고 불평등을 감도하는 SOFA를 전면 개정하라
1. 주한 미군에 의한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폭력예방교육 실시하라.
1. 기지반한시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00. 7. 27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여성회
새세상을여는민주교여성공동체 새출발 수원여성회
한국여성연우회 한국여성외친화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 관한 여성계 입장

-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다시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협상이 시작되었다. 1995년 5월, 중무로 지하철 내 미군의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중단된 지 4년여가 지나서 열리는 협상이다. 오랜 개정요구와 기다림 끝에 열리는 협상인 만큼 기대가 크다. 이번 협상이 진실로 한국인의 인권, 재산, 안전 그리고 한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한미 양국의 우정어린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개정되지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번 협상에서 다뤄야 할 의제를 한미 양 정부에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협상에서는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정부의 형사관할권이 완전히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형사재판권은 주권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며 국제법상 가장 고유한 국가의 권한이다. 그런데 현재 행정협정은 이런 고유 권리를 잠식하거나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쟁점이다. 한국이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라도 미국측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1차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호의적 고려' 조항을 두어 실제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율을 연평균 3-4%에 머물게 만든다거나 하는 것이 그 대표적 예들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도 인신구속의 제한으로 한국의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수사할 수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검찰은 상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도 그 예들이다. 범조인들은 이러한 행정협정은 명백히 국제인권법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동안 미군들의 크고 작은 범죄로 기지주변의 여성들과 주민들이 성희롱, 폭행, 강간, 살인, 사고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왔지만 많은 경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평등한 행정협정의 조항들 때문이다. 빈곤으로 직결한 대안이 없어 상대에게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당국도, 많은 지역민들도 쉽게 무시하고 있다. 한미 양정부는 국제법상 국가의 가장 고유 권한인 형사재판권을 전면 보장하여 이 땅의 여성들과 약자들과 주민들이 미군의 불법적 범죄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조항도 이번 개정에서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1995년 미국과 독일은 미군이 독일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환경협정에 첨가했다. 대항라 폭격장 주인의 고통과 최근 미군당국의 독극물 무단방출 사건을 교훈으로 미군당국이 한국의 환경법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지 반환시 원상회복, 또는 환경정화의 책임을 명시하고 손해배상의무조항도 반드시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 미군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대항리와 같이 실험사격연습, 목적연습시의 저공비행과 심각한 소음, 열화우라늄탄의 사용, 탱크피리트와 같은 중대한 군사활동의 환경적 영향, 교통사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지에서 일상적으로 유출되는 고도의 발암물질(오일, 솔벤트, 중금속 등)이 포함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만의 한 기지가 반환된 후 만들어진 규정에 '이곳에는 20년동안 인간이 살아서는 안되며 여기서 잡은 물고기를 먹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기지오염이 국민건강에 매우 위협적임을 미국은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미군기지내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미군당국에 대한 불만, 관세 상의 특권제한과 세관검사와 검역강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불명당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구는 여성계에 의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1992년 동두천에서 우한미군 마이클에 의해 윤금이며 살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 경찰은 미군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빙인도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군관리의 입회도 없는 한 미군에 대한 예비수사나 재판진행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한국 수사당국은 초동수사나 사법부의 재판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뿐만 아니라 1988년 발생한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 1995년 발생한 총부르 자하월 미군병사 성추행 사건, 최근 발생한 대구 초등학교 성추행 사건 등 많은 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폭행당하고 강간당하는 등 미군 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더욱 기막히는 상황은 작년 1월 봉주촌에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범인에 의해 살해당한 기지촌 여성 신차금씨, 기지촌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센터(새유터)에서 일하던 중 9월에 살해당한 이정숙씨, 2000년 2월 이태원 미군전용관점에서 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김성희씨, 3월에 의정부에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범인에 의해 살해당한 68세의 기지촌 여성 서정만씨 등 작년과 올해에 걸쳐 4명의 여성이 기지촌에서 살해당했다. 이 사건들 모두 미군이 범인이거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으나, 실제로 검거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불명당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 밖에 없다. 미군이 유력한 용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수사대(CID)의 수사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미군의 알리바이에도 몇가지 허점이 발견되었지만 미군과 한국 경찰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고, 미군 용의자를 본 목격자도 있었고 사건 동파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미해결 된 채 미군에 빠져 있다. 이처럼 계속되는 기지촌 여성 살인 사건의 해결

을 위해서는 미군 범죄 수사 과정에서외 형사 관할권 문제의 재정이 시급하다. 강력범죄의 경우 한국인이 피해자라면 미군 범죄자 인도 시기를 기소 이전이라도 인도받아 철저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에 의한 성범죄, 인권유린, 환경오염 등은 더 이상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주한미군이 저질러 온 인권유린에 대한 방지대책, 주한미군을 위한 특수 성산업지역인 기지촌을 통해 퇴폐적인 성문화가 확산되고 상대대가 일상화되어 온 것에 대한 근절대책, 혼혈아동 양육문제, 기지반환에 따른 기지촌 여성의 지원대책, 기지촌 여성에 대한 학대 및 살해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혼혈아동 문제도 이번 재경에서 반드시 다루지도록 해야 한다. 미·독일간의 행정합경에는 미군당국이 미군이 낳은 혼혈아들의 아버지를 찾아주는데 협력하고 혼혈아를 가진 독일여성에게 미군아버지들이 부양책임을 지도록 권고하고, 이 아버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1982년 베트남-미국 혼혈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혈아 이민법(Amerasian Immigration Act)을 만든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 혼혈아 문제는 취급치 않으며 1951 -

198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만 해당되도록 했다. 이들 혼혈아들의 인본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협정에서 혼혈아들의 인본보호조치도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이다.

이제 8월 2일부터 만 4년만에 재개되는 SOFA 협상에서 여성인권 보호조항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미군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기지촌 여성들과 성추행당한 여성들과 혼혈아동들을 위해 여성인권보호조항이 SOFA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그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한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주한미군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주한미군에 의한 성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미군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기지촌 여성의 인권보호와 직업재활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혼혈아동에 대한 미군아버지의 부양책임을 분명히 하고, 혼혈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 기지 반환시 기지 전용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2000년 8월 2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새순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SOFA 여성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위한 여성계 요구안

* 9월 19일, 평화여성회, 새총회,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공동주최한 “여성인권 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SOFA 개정 정책과합회”의 논의에 기초해 작성된 요구안으로 이길찬총동맹대표가 SOFA 개정을 위해 당이시 출판된 정책부의 친문, 사회의리단체에 전달하였다.*

9월 말,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9차 SOFA 개정 협상에 즈음하여 여성계는 아래와 같이 SOFA개정제 여성 인권 보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한다.

1.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성인지적 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 2)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을 금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범죄는 이들이 사회적 악자임을 고려해 양국의 처벌조항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하고 피해자 대상에서도 양국의 대상관계 중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 3)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일 경우 전담 여성수사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권리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 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시한다.

2. 혼혈아동의 권무 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미군이 친부임이 확인된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미국 입학시의 지원책도 규정되어야 한다.

- 1) 현재 한국에 1,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혼혈아동은 혼혈아이자 태운 여성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받고 있으며, 편견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고용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 2) 입법례로서 미-독협정(The US-German Agreement)과 교환각서(Exchange of Notes)에 있는 '부양요구(maintenance claim),(1956. 4.18-1959. 8. 3)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해야 한다.

- 1)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미군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性病/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2) 기저 반환 및 접수시 기지전을 계획에 가진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대책을 포함시킨다.
- 3) 미군을 대상으로 대순대방교육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대순금지를 명문화한다.

4. 미군의 주둔국 배치 적절과 작후에 주둔지역의 견습과 법(특히 성폭력 특별법), 남녀관계(gender relation), 지역정서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5.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모성 및 주인의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2) 미군주둔과 작전수행에 따른 제반 환경오염정도와 이것이 모성 및 주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배상지무, 오염정화 및 원상회복 책임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야한다.

6. 미군차량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

- 1) 어린이와 주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미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급과 손해 배상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미군차량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규정과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7. 과다한 방위비를 분담시키는 [주둔정비특별협정(1991)]을 폐지해야 한다.

- 1) 이 협정은 합중국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본 협정 제5조 제1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 2) 선진국 방위비 분담비율(일본은 76%, 독일은 33%, 나토회원국은 25%)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한국정부가 과도하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주한미군주둔비용의 78%)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 3) 사회복지망이 취약한 한국상황에서 과도한 군사비를 여성과 노약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비와 사회안전망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Statement of Korean Women's Organizations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ar Mr. President

We appreciate your sustained efforts to preserve and strengthen the value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We also endorse your support of the efforts to reform the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 short,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e urge that during the ninth SOFA meeting, to be held in Washington in near future, the human rights of American soldiers as well as the Korean women and children who inhabit near the US bases be taken into full consideration along with security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US-ROK SOFA, which was established in 1967, maintains an unequal relationship and has not been substantially improved despite several modifications. The US-ROK SOFA is an unfair agreement as compared to those of other countries. The human rights of Korean women, children and residents located close to American bases are threatened by this unjust agreement. In particular, the health of pregnant women who reside near the bombing range around Maehyang-ri is seriously threatened. It has been proven that residents of Maehyang-ri suffer from a higher than average rate of miscarriages and childhood traumas due to the noise levels. The noise affects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local youths and is thought to be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abnormally high level of crime and violence in the area. Maehyang-ri residents also have a high rate of suicide due to severe mental stress incurred through the noise pollution. In addition, this village has seen considerable damage in terms of soil and water pollut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has been releasing expired Formaldehyde into the Han River, the local water source for Seoul citizens. Clearly, these problems suggest an urgent need to reform SOFA in order to prevent future transgressions by USFK.

Turning to female sex workers who work on or near the USFK bases, a number of women have become victims of violence, rape and/or murder by American soldiers. However, due to the USFK authorities' primary jurisdiction established in the SOFA, American soldiers are punished lightly and Korean victims denied fair compensation. SOFA should be reformed to prevent infringements upon women's rights, including mistreatment and murder of Korean women, curb the expansion of prostitution and sexual trafficking, and provide clear guidelines for the responsibilities vis-a-vis children who were born to an American soldier and a Korean woman. The eighth revision of SOFA, which was held following the last revision four years ago, failed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Korean populace. Both the Korean and the U.S.A. governments should guarantee the primary right of the military authorities in order to protect Korean women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from criminal acts perpetrated by American soldiers.

We welcome the ninth revision of the SOFA in Washington and call for substantial reforms, especially the inclusion of a clause that will protect women's rights. We present the attached document "Demands from Korean Women's Organizations regarding the reform of SOFA pertaining to women's rights issues".

Now that we have entered the 21st century and are living in a post-Cold War era, we urgently call for the immediate reformation of the SOFA, which is the target of Korean people's criticism and violates Korean sovereignty.

We believe that your support to the ninth revision of the SOFA will promote friendship between R.O.K. and the U.S.A. and ensure more effective cooperative development effor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Yours sincerely,

Women Making Peace
Korean Women' s Associations United
Saewoomtuh (For the Kijichon Women and Children)
(note: Kijichon translates as "US Military Camp Town in Korea").

September 21, 2000'

Demands from Korean Women' s Organizations regarding the reform of SOFA pertaining to women' s rights issues

We would like to strongly urge that a clause protecting women' s rights be established during the ninth reform process of the SOFA to be held in Washington in the end of September.

1. An article protecting women and children should be established.

1-1) gender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American soldiers and relevant employees should become mandatory.

1-2) This article should prohibit any sort of violence perpetrated by American soldiers towards women and children on or near the base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In the case of such criminal acts, on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women and children who are marginalized in society. The act must prioritize the interests of the victim.

1-3) In cases where a victim of a sex crime is a woman or girl child, the victim must be able to request a female investigator and have the right to request that the interview take place in a third location due to safety concerns.

2. In cases involving children who were born to an American soldier and a Korean woman, an article demanding identification of the biological father should be established. An article should also be established requiring that the biological father bear the expenses of raising the child.

In the case of children whose fathers are identified as American soldiers, the US government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 s education and job training and provide support for the children' s immigration to the

U.S.A.

2-1) It is estimated that there are about 1000 children whose fathers are assumed to be American soldiers. These children are discriminated against; suffer from prejudice and social stigmatization. Because of this and their lack of education, they lack access to equal employment opportunities.

2-2) "The maintenance claim' (1956, 4.18-1959, 8.3.) within 'the US-German Agreement' and 'Exchange of Notes' should be considered as possible legislative models.

3. An article to provide support for female sex workers who serve American soldiers should be established.

3-1) It should stipulate tha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AIDS tests be carried out on American troops on a regular basis for the safety of Korean sex workers.

3-2) The article should also include measures to support Kijichon women and children at a plan to turn the American base into civil area when the American base is returned. (note: Kijichon translates as "US Military Camp Town in Korea").

SOFA 개정시 여성인권보호조항 신설을 위한 청원취지

1967년 발효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약칭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은 그동안 몇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불평등성, 비합리성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간 SOFA(US-ROK SOFA)는 미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SOFA 중에서 가장 불평등한 협정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SOFA가 안고 있는 여러형태의 불평등 조항들로 인해 한국 여성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생존권, 환경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등 한국국민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기지촌 여성은 물론 일반여성과 아동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성폭행 사건, 자궁에 칼과병이 박힌 채 무참히 살해된 윤금이 사건, 대구 초등학교 성추행사건, 미군에 의해 살해당한 증거들이 확실시되지만 범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죽어간 수많은 기지촌 여성들 등 그동안 주한미군 범죄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한국이 주권국가인지를 의심하게 할만큼 많이 쌓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미항리 폭격장 주변의 여성들은 특히 모성을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폭격소음으로 임신모들의 유산율은 매우 높고 어린이기들은 폭격소음으로 잦은 경기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포악한 문제소년들이 되고 있습니다. 정서장애로 인해 주민들의 자살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성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출 사건으로 폭로된 미군의 환경오염문제는 더 이상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환경피해에

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환경조항이 현행 SOFA에는 없습니다.

기존은 여성들과 혼혈아동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합니다. 수많은 기존은 여성들이 미군들의 폭행, 강간,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있지만 SOFA의 불명등한 형사재판관련권 조항으로 인해 미군가해자들은 적법하게 처벌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인 피해자들의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 아버지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없이 버림받은 채 어렵게 살고 있는 1000여명의 혼혈아동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군기지내에서 일하는 한국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노무조항도 신설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열악한 사회복지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방위비를 분담시키는 주한경비특별협정도 폐지시켜야 합니다.

몇달 전 한국과 미국은 제8차 SOFA 개정 협상을 4년만에 재개하였으나 여성을 비롯해 한국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새움터, 한국기독교여성연합회는 한미 양국이 21세기 탈냉전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한미 동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의 주권을 대표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한국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SOFA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향후 계획된 개정협상에서 특히 여성인권보호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원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청원내용

SOFA 개정에 신설되어야 할 여성인권보호 조항

1.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미군과 그 가족에 대한 상인지적 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 2) 주둔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미군의 모든 폭력을 금지시키고 이들에 대한 범죄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고려해 양국의 처벌조항 중 보다 엄격한 것을 적용하고 피해자 대상에서도 양국의 대상관계 중 피해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을 따르도록 규정한다.
 - 3)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이나 아동일 경우 전담 여성수사관에게 피해자 진술을 할 권리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음도 명시한다.
2. 혼혈아동의 권부 확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하고 권부에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미군이 권부임이 확인된 아동들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 미국 입국시의 지원책도 규정되어야 한다.
 - 1) 현재 한국에 1,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혼혈아동은 혼혈아이지 폐출여성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낙인과 편견을 받고 있으며, 편견과 교육 부족으로 인해 고용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
 - 2) 입법례로서 미-독협정(The US-German Agreement)과 교환자시(Exchange of Notes)에 있는 '부양요구(maintenance claim),(1956. 4.18-1959. 8. 3)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방안을 신설해야 한다.
 - 1)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미군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병/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 2) 기지 반출 및 접수시 기지전용 계획에 기지촌 여성과 혼혈아동 지원대책을 포함시킨다.
 - 3) 미군을 대상으로 태춘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차적으로 태춘금지를 명문화한다.
4. 미군의 주둔국 배지 직권과 직후에 주둔지역의 관습과 법(특히 성폭력 등

별임), 남녀관계(gender relation), 지역정서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5.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미군주둔과 군사훈련으로 인한 모성 및 주민의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2) 미군주둔과 작전수행에 따른 제반 환경오염정도와 이것이 모성 및 주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대응의무, 오염정화 및 원상회복 책임 조항을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

6. 미군차량의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어린이와 주민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미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와 관련 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지급과 손해 배상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미군차량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규정과 한국에서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7. 과도한 방위비를 분담시키는 [주둔경비특별협정(1991)]을 폐지해야 한다.

- 1) 이 협정은 합중국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본 협정 제5조 제1항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 2) 선진국 방위비 분담비율(일본은 76%, 독일은 33%, 나토회원국은 25%)에 비해 경제력이 약한 한국정부가 과도하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주한미군주둔비용의 78%)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한다.
- 3) 사회복지망이 취약한 한국상황에서 과도한 군사비를 여성과 노약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비와 사회안전망 비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8.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노동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 1) 최소한 한국의 여성노동관련 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An Appeal to the Participants of Millennium Forum from Korean Peace NGOs

The historic Summit of North and South Korea will take place in Pyongyang, Capital of North Korea from June 12 to 14, 2000. This is the first Summit since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in 1945 with the collapse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We welcome this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create a momentum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peace based on mutual respect and trust between two Koreas.

We, Korean peace activists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following appeal we have made to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the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Japan.

First, armistice agreement should be changed into peace treaty. Korea is technically still at war because both Koreas are under the armistice. Korea peninsula is one of volatile areas among conflict areas.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take positive steps towards building peace and reunification in Korean peninsula.

Second, the role and status of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should be redefined to promote adoption of a peace treaty. Presently there are 96 bases occupied 480 million sq. feet of land to house for 37,000 US soldiers. USFK causes many problems in Korea: unregulated, free use of land for the military bases, crimes, prostitution, and ecological contamination. Korean NGOs have made efforts to eliminate crimes and prostitution around military bases. We have repeatedly asked the U.S. to return the land they are using for free. The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s should fully revise the unfair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urgently.

Third, the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must sign and ratify the Mine Ban Treaty. Mine Ban Treaty is a big success of NGO activities in

disarmament movement. Korea Campaign to Ban Landmines estimates that there are one million anti-personnel landmines on Korean peninsula.

Fourth,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should take steps for reduction in their arms and military expenditure and divert military expenditure to better human life.

Fifth, Japanese government should stop remilitarization of Japan and give official reparation to the victims during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and the Pacific War. We object to establishing Theater Missile Defense System and revision of the New Guidelines of US-Japan defense cooperation. Japan, which provoked the Pacific War, has not given the truth of war crimes and sincere apology to the victims.

Korean peace activist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to build peace and reunification in Korea and work together with peace activists in the world to make a war-free world. We will continue to struggle against culture of violence and for culture of peace.

Finally, we would like to invite peace activists and NGOs in the world to workshops on peace during the ASEM (Asia Europe Meeting) 2000 Peoples Forum which will be held on 18-20 June in Seoul.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at the ASEM 2000 Peoples Forum

2000. 5. 22

Women Making Peace (wmp@chollian.net)

The National Joint-Committee to Demand Returning U.S.Military Bases as Our Land to Korea (usacrime@chollian.net)

The Millennium Appeal of NGOs for Peace, Security and Disarmament in Northeast Asia

26 May 2000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We, the representatives of NGOs, responding to the call of Secretary-General Kofi Annan, attended the Millennium Forum held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We would like to draw your attention to the following four point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issue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First, transforming the armisti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permanent peace treaty would represent a major step in build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entire Northeast Asian region. We welcome the historic Summit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Summit is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create a momentum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peace in the region.

Second,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s (SOFA)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fully revised to meet the requirement of mutual respect and equality between the countries concerned. The unequal nature of the SOFAs has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the lives of Korean and Japanese citizens.

Third, we demand a nuclear weapons-free zone in Northeast Asia. The continued reliance on nuclear weapons and their threat or use by accident, miscalculation or design is a great threat to peace in the region.

Fourth, we are concerned about remilitarization in Northeast Asia. We oppose the new US-Japan Defense Guidelines, the Theater Missile Defense System, and the attempt to revise Article Nine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renunciation of war clause).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pay official reparations to the victims in Korea and other parts of As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occupation.

We believe these issues need urgent attention. Action is needed at the grassroots and the highest leve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yung-Lan Jung, Women Making Peace, South Korea

Yong-Han Kim, People's Action for the Revision of SOFA, South Korea

Akihiko Kimijima, Hague Appeal for Peace-Japan

Yoko Furuyama, Peace Boat, Japan

Hiroshi Katsumori, The Article Nine Society-Japan

John H. Kim, Veterans for Peace-New York Chapter

Randall Fursberg, Institute for Defense and Disarmament Studies, US

밀레니엄 포럼에서 동북아 평화, 안보, 군축에 대한 NGO성명서

2000년 5월 26일

유엔 뉴욕 본부

우리,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요청에 호응해 올해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리는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점을 천명한다.

첫째,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 전환은 동북아 전지역의 평화와 안보 진전에 중요한 조치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환영한다. 이 정상회담은 이 지역에 화해, 협력과 평화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창조하는 선례 없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일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관련 국가의 상호존중과 평등에 기반해 완전히 개정되어야 한다. 주둔군 지위협정의 불평등성은 한국과 일본 국민들에게 심각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우리는 동북아 비핵지평화를 주장한다. 핵무기에 대한 의존과 핵무기 사용과 그 위협을 우연해, 오산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이다.

넷째, 동북아지역의 재군사화를 우려한다. 우리는 미일방위협력 신가이드라인, 전역미사일 방어체제, 일본 평화헌법 9조 (전쟁 금지 조항)를 개정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일본정부는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 기간 동안 한국과 아시아 지역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배상을 지불해야만 한다.

우리들은 이 주제들에 대한 긴급한 관심을 촉구한다. 국제사회의 기층 집단에서부터 최고위 집단까지 행동이 필요하다.

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
김용현, SOFA개정 국민행동, 한국
아키히코 기메지마, 헤이그 세계평화대회 일본 네트워크, 일본
요코 후루야마, 피스보트, 일본
히로시 카츠모리, 일원법 9조 협회, 일본
존 H. 김, 평화 전역장평화·뉴욕 지부
앤달 포스베그, 방위와 군축연구소, 미국

“국제 여성 Summit - 안전보장 재정의를 향하여” 성명서

G8선진국 수뇌회의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오키나와에서 개최됩니다. 이에 앞서서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 동아시아-미국 군사체계에 반대하는 여성 Network과 기지·군대를 허용하지 않은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은 국제 여성 Summit를 열고 안전보장 재정의를 위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한국, 미국, 일본, 오키나와에서 95명이, 그리고 250명 시민이 참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집회는 G8의 경제정책에 의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에 항의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G8으로 인해 고안된 경제정책 아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리며, 자연환경까지 파괴시킵니다. 나아가 이 경제정책은 세계 각지 군사체제를 더욱 더 심각화시키는 것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지역에 있어서 항의의 목소리를 조종, 억압하여,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낳는 파괴무기 개발, 생산, 판매까지도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8의 정책은 인종차별, 성차별, 이익우선주의, 혹은 자연 무분별개발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은 「욕망」, 「지배」, 「파괴성의 결여」의 반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경제, 사회, 정치 system은 편견, 무지, 그리고 손에 넣은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번 여성 Summit은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1997년 제1회, 그리고 1998년 제2회 Washington회의에 이어서 개최한 제3회 Network회의입니다. 우리는 군사체계에 반대하여 진정한 지구 안전보장과 평화를 향해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강력한 Network만들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4일 동안의 일지에서 진정한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다음 4가지 신념에 기초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하였습니다.

- 인간, 그리고 자연의 생명을 보호하는 환경
- 의식주, 의료, 교육,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needs가 채워지고 있을 것
- 인간의 존엄, 문화적 Identity가 존중될 것
- 「인재」에서 지켜질 것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진정한 안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국제적인 평화, 인권단체, 분쟁 조기 해결, 조정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지와 공존하는 우리 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화에 반대하고, 진정한 안전보장을 달성한다는 공통인식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안전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 G8Summit 참가국 수뇌, 그리고 우리 여성 Summit 참가자 총 신국 수뇌에 대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 쿠에르토리코 비에제스섬 폭격훈련 중지
- 필리핀 민다나오섬 분쟁 정지
- 한국과 조선의 남북통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반도 긴장완화에 노력할 것
- 오키나와에 있어서 새로운 기지 건설 또는 이설 계획(예를 들어 헤노코 헤리 기지 건설계획)중지
- 이들은 기지 반환의 필요조건이며 지역 자립을 도울 일이다.
- 새로운 무기개발, 실험, 판매중지
- 오키나와, 일본본토, 한국, 필리핀에서 기지 철거 첫 단계로 불평등조약인 일미, 한미지위협정, 그리고 미국과 필리핀정부 사이에서 체결된 미군방문국협정, 각각 개정할 것.
- 미군의 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의 모든 공공시설, 인재를 제공하는 일미가이드라인법 철폐를 요구한다.
- 미군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예를 들어 미군기지에서 나온 병목성폐기물, 폭음,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보상, 특히
 1. 1999년 10월 Washington에서 열린 풀뿌리 단체로 인한 「군대유독화학물질 대책을 위한 국제 Summit」에서 정해진 미군주둔국 권리법안을 채용할 것을 제안한다.
 2. 미군주둔국 여성, 군인여성, 군인의 가족 등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

한 보상과 책임 추구.

3. 군대로 인한 여성에 대한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비준할 것
- 미군사화를 위해서 기지철거의 구체적 기원과 군사비 삭감을 극력 선명할 것
 1. 일본정부는 미군에게 주는 배려예산을 폐지할 것
 2. 예를 들어 연 5% 군사비를 삭감하여 삭감 분을 피해자 구제, 또는 보상으로 사용할 것
 3. 군비를 대신하는 분쟁해결에 노력할 것
 4. 의식수,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needs를 공급할 것
 - 기지 폐쇄, 기지가 떠난 땅 이용, 전환 계획 등, 평화, 안전보장문제를 해결할 단계 모두에 여성의 의견과 leadership을 채택할 것
 - 평화고심, 부흥계획 모든 단계에서 여성 NGO참가를 의무로 할 것
 - 군비의 민주전환, 기지반환, 기지가 떠난 땅 이용 계획은 지역 문화를 존중하여 또한 지역의 needs에 맞게 할 것. 진정한 안전보장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2000년 6월 27일

동아시아-미국 군사체계에 반대하는 여성 Network
기지·군대를 허용하지 않은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

제41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1992년부터 시작되어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오늘로 416차를 맞게 되었다. 그 동안 우리는 일본 정부에 진상 규명과 공식사죄, 정신적, 물질적 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여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은 채 변화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폭염 있는 일원이 되려고 한다면, 지난날 그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아시아 각국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해야 할 것이다. 특히 힘없는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 노예로 전락시켜 인권을 유린했던 과거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만 한다. 일본정부는 전쟁시 여성에게 가해진 인권유린을 온몸으로 증언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분들에게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한다. 그리고 다시 여성을 전쟁의 희생양으로 삼는 파란치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세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지난 6월 13일에서 15일까지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회호 여사는 남북 여성들이 정전대 문제 공동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 여성들은 이념의 벽을 넘어 무너진 여성과 인권을 되찾고 평화를 실현하는 대열에 함께 손잡고 나설 것이다. 또한 아시아 피해국들, 그리고 일본의 양심 있는 시민단체와 한국정선대문제대책협의회, 세계의 여성인권단체가 연대하는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 2000년 12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다. 민간의 힘으로, 여성의 힘으로, '위안부' 전범자를 처벌하여 깃발한 인권을 되찾고, 불의와 폭력에 대항하여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려는 이 시민 법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젊은 세대의 힘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학생법정에도 우리 모두는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 나갈 것이다.

오늘 시위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일본정부에게 하루 빨리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불의와 폭력으로 얻
속된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정의롭고 평화로운 희망의 미래를 새천년에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어둠의 역사를 짊고 인권과 평화의 역사를
향한 할머니들의 투쟁에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여성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일본정부는 조직적 성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일본정부는 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본정부는 범죄사실을 바르게 교육하라!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라!

**한국정부는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과 억압의 역사를 덮어두지 말고 해결
에 앞장서라!**

2000년 6월 28일

한국여성학자협의회 여성신학동아리연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제43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성명서

우리는 11월 3일 '문명군' 할머니의 일흔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1917년 전남 풍양에서 태어난 문 할머니는 18살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어려운 생활을 하다 1999년 9월 64년만에 영구 귀국하여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가십적이지만 할머니의 온은한 웃음이 바로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위안부 생활의 후유증을 안고 사시면서도 전 재산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위원회'에 전달한 할머니는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픈 그 아름다운 감정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의 상처와 아름다운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역사에 대한 폭력이 없는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대해 최대 희생당한 '위안부' 할머니의 정의와 존엄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 중의 성폭력에 대한 불치병 문제를 종식시키지 않는 한 아시아, 유고슬라비아, 브란다에서 있었던 무장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이해같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는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제 그리고 무력전쟁에서의 여성에 대한 여러 형태의 폭력을 전쟁범죄이며 인권에 반하는 범죄행위이고 정부들은 조사와 범죄자들에 대한 기소, 그리고 희생당한 여성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백히 명시하는 행동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더욱 2000년 국제법정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과 민간단체들이 힘을 합쳐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가해자에 대한 불치병을 종식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2000년 국제법정은 일본정부가 범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가해자들을 고발, 처벌해야 하는 그 의무에 답하는 것을 거부해왔고 국제 사회가 일본의 성노예제도를 고발하지 못한 데 따른 여성들의 노력의 소산입니다.

2000년 유엔이 정한 평화문화의 해에 국제법정을 여는 것은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를 넘어 정의와 화해가 꽃피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 위한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법정을 통해 우리는 그 범죄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법정은 또한 희생자들의 정의와 존엄성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화해라는 기반에서 진정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아시아에서 함께 나누는 미래에 대한 기반

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대와 협력정신에서 2000년 법정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 일본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된 성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라.
- 일본 정부는 성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하라.
- 일본 정부는 기만적인 국민기금을 해체하고 법적 배상을 실현하라.
- 일본정부는 성범죄 책임자를 처벌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라.
- 남북이 하나되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
- 2000년 국제법정으로 평화세상 앞당기자.

2000년 11월 8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및 제434차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교류에 대한 남북여성의 합의를 환영한다.

6월 15일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통일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경제협력 및 다방면 교류, 김정일 위원장 서울방문 등 두 정상의 합의는 냉전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통일을 자주적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민족사적 대전환을 이루었다.

특히 여성 분야 간담회에서 이희호 여사와 장상 총상이 북측 여성지도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동 대처와 남북여성교류에 합의한 데에 환영한다. 뿐만 아니라 최초로 4차례에 걸쳐 남북 여성교류를 성사시킨 바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여성간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희망과 입장을 밝힌다.

1. 남북 여성들이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2000년 12월에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 법정"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
2. 1993년 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동경 토론회 이후 중단된 제5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가 재개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남북여성들이 동북아 여성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희망한다.
3.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여성들이 힘을 모아 진행한 1997년 "밥 나누기 사랑 나누기"를 통해 북한 어린이에게 탈지분유를 보내는 등 북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민관이 협력하여 지원 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4. 추후 부문간 협상과 정상회담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기를 양 정부에 촉구한다.

2000년 6월 15일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사)한국여성단체연합

전쟁방지와 대안안보 확립

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세기가 열렸다. 21세기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21세기를 만드는 것, 21세기를 전쟁이 없는 최초의 세기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전쟁으로 얼룩진 21세기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다. '전쟁의 재앙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게만 맡길 수 없다. 민간차원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평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1세기에는 군사안보에 의해서 인간의 생존권이 희생당하고 인권이 유보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 대안적인 안보이다. 빈곤상대에서는 전쟁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지구촌의 가난을 타파하는 일은 전쟁을 막고 대안적인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우선 과제이다. 폭력과 파괴의 문화에서 민주주의와 참여를 중요시하는 평화와 관용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평화운동의 과제이다.

제안사항

1. 아셈정부들은 20세기에 일어난 모든 전쟁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들에 대한 법적 물질적 보상을 통하여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아셈 정부들은 유럽과 아시아를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 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합의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3. 아셈정부들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대인지뢰의 생산, 수출, 비축,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아시아와 유럽에서 대인지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대인지뢰피해자들의 재활을 지원한다.

4. 아셈정부들은 아시아와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재검토하고, 미군의 주둔없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안보체계 수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미일 신가이드라인과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아셈 정부들은 미국의 군사력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새롭게 확산되는 것을 억제한다.
5. 아셈국가들은 미국에 의해서 추진되는 NMD-TMD 체제가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ABM조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6. 아셈국가들은 군사주의의 확대가 여성과 어린이의 권리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공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7. 아셈국가들은 강제적인 경쟁제도에 의해서 인권이 희생당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감시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한다.
8. 아셈국가들은 아시아 유럽의 외교관계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을 증대시켜서 인간안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ASSEM 2000 민간포럼 여성분과 성명서

■ Women's Vision

우리는 성에 의한 차별과 소외없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조화되어 살아가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의사결정과정, 정책 입안 과정에 여성의 시각을 부여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성주류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양성평등사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21세기 성평등사회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중대 논리와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갈락하여 개도국과 후진국 여성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러한 국가간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여성은 더욱 소외되어 왔으며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의 완전한 이행은 유보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여성의 삶을 피폐화시킨 현장을 고발한다. 우리는 또한 아셈 회원국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되는 여성소외와 빈곤화 현상을 개선하고 성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경제의 세계적인 통합은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기난하게, 무자를 더욱 무자로 만들어 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장 열악한 노동자 집단인 여성노동자들은 우선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은 격화되는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회복지안전망도 없이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완전 고용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으로써,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와 실질적 이행을 요구한다.

분쟁과 갈등의 20세기를 통해 여성에게 지형되었던 각종 폭력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에서 빈곤으로 내몰린 여성들이 폭력에 쉽게 노출되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 여성과 여아의 성적 결정권을 유연해오던 인신매매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조직적인 국가간 거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

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은 한층 심각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제23차 UN특별총회의 '북경선언과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추가 행동 및 과제'에서 천명되었듯이, 현행법률의 강화, 단호한 법적 조치, 폭력 예방 캠페인 및 경보요청, 피해자 보호와 인식대변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 등은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그 동안 여성들은 평등과 평화, 상생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일에 앞장서 왔다. 평화의 새기를 열어가는 새천년의 첫 번째 아성을 계기로 회원국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이름으로 심화되는 성에 의한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여성에 참여하는 아시아-유럽의 모든 정부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북경여성행동강령, 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 등 여성관련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조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 여기 모인 우리 아시아-유럽-한국 여성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00년 10월 19일

ASEM2000민간포럼 참가자 일동

빈곤과 폭력추방을 위한 세계여성대회 한국대회 결의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반대, 빈곤과 폭력추방을 위한
한국 여성들의 결의를 밝히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빈곤과 폭력을 추방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하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도구 IMF, WTO가 행한 구조조정은 이 땅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터전으로 육련하는 과정이었다.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IMF, WTO가 요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과연 어떤 세상을 위한 것이었는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여성이었다. 여성은 고용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가계 보조자라는 이유로 폭승간은 일터에서 제일 먼저 해고되어야 했다. 남편의 실적으로 가정이 파탄나 먹고 살기 위해 다시 일터를 찾아나선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임시일용, 파트타임, 파견노동 그 이름도 다양한 비정규직이었다. 여성 노동자의 70%가 임시일용자인 상황에서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은 헌신짝처럼 땅에 버려졌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속에서 여성들은 경제위기로 피해해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했다. 여성은 하루 하루 빈곤층으로 전락해갔고, 더욱 피해해진 가정속에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더욱 증가하였다.

우리 여성들은 분명히 보았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자본의 자유, 가진자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자유를 위해 짓밟힌 것은 여성의 일할 자유, 행복할 자유였다.

우리 여성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시장에서 화폐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성의 일할 권리도, 여성의 인권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놓임도, 환경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인 교육도 시장에서 평가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WTO와 IMF는 화폐로 환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자본축적을 위한 도구로 처부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이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우리 삶의 필수적 조건들을 초국적 자본의 시장터로 끌어내려는 것임을 알고 있다. 이제 이 땅은 초국적 자본의 생탈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여성들은 우리에게서 평등과 자유를 빼앗아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전세계 159개국의 여성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빈곤과 폭력 반대를 외치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일할 자유, 행복할 자유와 권리를 우리의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손으로 이 땅을 새롭게 구조조정할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여성과 장애인, 노인과 이동을 위한 구조조정,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 세상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WTO, IMF와 한국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1.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WTO, IMF는 전세계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방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라!
2. 한국 정부는 초국적 자본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즉각 폐지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3. 한국정부는 기업의 여성우선 해고 및 불법적 비정규직화를 강력히 처벌하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 복지정책을 수립하라!

2000년 10월 14일

빈곤과 폭력추방을 위한 세계여성대행진 한국대회 참가자 일동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비하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자질을 갖춘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11월 2일자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오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밝혀진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발언의 사실 여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성연합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저녁, 기자 및 외교통상부 고위간부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올브라이프 및 국무장관의 가슴에 관한 언급을 하고, KBS 십이도봉에 나가서 방청객으로 나온 여성의 치마 속 팬티를 보며 웃음을 웃었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크게 훼손시켰기에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지난 99년 정부에서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성희롱문제를 국가차원의 정책으로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공기업과 민간 영역에까지 성희롱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기초지식도 갖추지 못한 인물이 한 나라의 외교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정책결정권자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외교통상부 고위 간부들과 기자들이 모여 공식 행사(ASEM)의 뒷담화를 하는 자리는 완전히 사석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아무리 술자리와 같은 사석이라 할지라도 한 국가의 장관으로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새로운 평화공존의 장이 된 남북관계 및 동북아관계로 한창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국가의 장관에 대한 심적 비하발언은 한국의 대외 중구역할을 하는 장관으로써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시건임에 틀림없다. 여성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는 공직자가 과연 공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전지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비하·성희롱 발언이 한국사회 남성들의 설문화 속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요소가 아닌, 술자리의 안주거리로 회화화되는 현실과, 겉으로는 올브라이프 장관과 인사(포용)를 하면서 머리 속으로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는 것이 남성우월문화·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살아온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성의식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통탄하는 바이며, 공식 사회에서는 이런 사건을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 광범해있는 가부장적·남성중심적 음주문화에 대한 변성을 해야 한다. 또, 그 자리에 초대된 약25명의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에게도 자

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회 각 분야의 문제에 대한 외곡없는 보도와 이를 통한 건전한 시민여론 형성을 책임지고 있는 언론인들은 본 사건이 발생한지 10여일이 지나서야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여성비학·성희롱 발언을 술자리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남자다운 일, 대법하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일로 여기고 간과하였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새로 거듭나야 할 것이고, 고위공직자와 폐쇄적 출입기자단과의 공생문화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에도 이미 정부 위원회 한 위원장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자진 사퇴한 경우가 있다. 이에 이러한 발언의 근원지인 이정빈 외교보상부 장관은 국민에게 공식사과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여야 한다.

2000. 11. 3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연합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원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폭력예방치보센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성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경제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5개 지부 및 28개 회원단체)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사퇴 촉구 건의문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을 비하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국가적 수치를 당하게 한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정빈 장관은 지난 11월 3일 국정감사에서 '상당부분 왜곡되었고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하며, '사석에서 일어난 얘기고 간접적으로 격무와 연계된다'고 하여 실제로 본 사건에 대해 일부분 시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합으로 보내온 문건에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성희롱문제를 국가차원의 정책으로까지 시행하고자 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공직사회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성희롱을 포함한 남녀차별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정빈 장관은 국가사석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한 나라의 외교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 자질도 없이 공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직권자인 대통령님께서 모든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정빈 장관을 즉각 사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후 고위공직자 임명시 여성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의한 여성인권침해 사건이 제발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남녀차별 예방을 위한 성인지 교육 및 홍보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11. 10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성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친구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총연합회, 제주여성회, 학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충북여성인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보육고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인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5개 지부 및 28개 회원단체)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명동성당 단식농성을 지지하며

지난 12월 2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및 부정부패방지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은 얼마 12도라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노상단식농성 8일째.

이들이 외치고 있는 1인칭 두께의 스티로폼과 담요 및 장으로는 노상의 칼바람과 냉기를 막지 못해 탈진하거나 빙겨르에 의존하고 동상에 걸린 사람이 나타날 정도이다. 이렇게 강추위와 태고질 속에서도 인권활동가들이 길거리에서 단식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란 무엇인가.

반세기를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며 괴롭히게 만들고 무수한 인연 침해를 자행하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아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회인권위원회법 제정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소망이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개혁에 공감을 표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순간 이미 국가보안법은 스스로 절멸의 길에 놓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는 여전히 정치 상태에 있어 김대중 정권은 스스로 모순을 노출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이는 김대중 정권 출범 후 온갖 악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2001년 국정 지표로 내세우며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개혁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1월 3일 13개 인연단체 대표들은 3대개혁입법과 관련한 '긴급연담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김대중 대통령은 악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제는 '단지 말뿐만이 아닌'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인권대통령, 노병명화상 수상자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급박하고 절실한 개혁입법을 남겨두고 당리당략에 매달려 있는 정치권에게도 각성을 촉구하는 마이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

은 개혁입법의 시급함과 중요성을 인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당론을 정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권법안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불가 입장을 편 바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민들의 열원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권탄압을 자행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감시·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이 보장되는 밝다운 세상이 민주화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화된 안전지대에 살기를 소망한다.

2001년 1월 4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